

불교 대장경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법망法網의 역사 연원과 철학정신을 중심으로

김 지 수**

논문요지

본고는 불교 대장경에 다양한 법과 그물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동아시아 국법에 삼투한 ‘법망法網’의 역사연원과 철학정신을 집중 탐구한다. 연구에 기본방법은 한역 불전 원문을 해독하고 역사적 문헌자료 분석비평을 통해 논지를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이다. 따라서 논문 구성 및 전개가 일부 비슷한 내용의 단조로운 나열현상을 띠는 바, 무미건조한 사료史料에 무궁무진한 함의를 해석 음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본론에 앞서 우선 불교 대장경에 다양한 그물 비유 개황을 도표로 정리 소개하고, 이어 한역 불경 본문, 경률經律 주석, 고승 법문 및 어록에 나타난 ‘법망’을 차례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망梵網’에 주석을 통해 ‘법망’의 함의를 고찰하고, 무량수경 본문과 주석에 보이는 극락정토 ‘법망’을 집중 분석한다. 아울러 법망의 별칭 대명사인 ‘교망敎網’과 ‘승망僧網’, 그밖에 주요한 그물 비유들도 간추려 소개한다.

본고에 가장 큰 수확은, 일반 국법의 그물 비유에 담긴 편협한 함의를 풍부하게 확대·심화하는 불전의 ‘법망’ 해석론을 새롭게 발굴 소개함과, 그 결과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망’의 철학정신이 훨씬 고상하고 우아한 이상경지로 양양 승화되는 성과라 할 것이다.

검색용 주제어: 불교 대장경, 법, 그물, 비유, 법망法網, 범망梵網, 역사 연원, 철학정신

· 논문접수: 2020.12.11. · 심사개시: 2020.12.30. · 게재확정: 2021.01.11.

* 본고는 주제가 비록 ‘法網’이지만 ‘불교 경전 법문’을 대상으로 연구한 글이라, 일반 국법을 주로 연구하는 주류 법학 풍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 법전원 법학술지[모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아예 ‘심사불가/사양’해 기다리는 시간을 제법 허비했고, 다른 한 법학술지에서는 심사는 진행했으나 3인 중 1인이 본고의 성격과 체계, 기술방식 등을 이유로 ‘게재불가’를 판정해 퇴짜 맞았다. 다행히 ‘명지법학’에서는 세 분 심사위원 모두 열린 마음으로 심사해, 독특한 창의성과 성실한 연구 작업을 긍정하는 관용으로 흔쾌히 게재에 동의하고 질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년 남짓 지속된 CORVID19로 자못 우울한 데다 수십년만에 몰아닥친 엄동축한 분위기에서도 자상한 심사평을 보내주신 세 분 심사위원과 ‘명지법학’ 편집관계자 제위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 아울러 본고에 주된 자료인 2014년판 ‘中華電子佛典 CD-Rom’을 제공해 주신 道伴 普淨 徐吉洙 선생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양법철학

< 목차 >

I. 머리글 II. 불교 대장경에 다양한 그물 비유 개황 III. ‘불법佛法’의 개념과 한역 불경에 ‘법망’ IV. 경률經律 주석에 등장하는 ‘법망’ V. 고승 법문 및 어록에 나타난 ‘법망’	VI. ‘범망梵網’ 주석으로 본 ‘법망’의 함의 VII. 무량수경 본문과 주석에 보이는 극락 정토 ‘법망’ VIII. 법망의 별칭 대명사: 교망敎網·승망僧網 IX. 기타 주요한 그물 비유들 X. 맺음말
--	---

I. 머리글

우리는 흔히 ‘법망法網’이란 말을 잘 쓴다. 전통법의 역사철학을 전공하며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동아시아 고전문헌과 역사자료를 두루 섭렵하면서 법을 그물에 비유한 사례가 유난히도 많이 나와, ‘법망’이란 용어개념의 역사연원이 궁금해져 한번 종합 정리하고 싶었다. 유불선 삼교경전 및 제자백가 역사서 등 방대한 문헌자료를 섭렵해 직간접 관련 문구를 발췌 번역해 글로 정리해 하다 보니 내용도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편폭도 제법 길어졌다. 사실 로자老子에 자연의 인과법칙을 상징하는 ‘천망天網’이란 개념이 일찌감치 등장해¹⁾ 눈길을 끌었던 까닭에 사전 기대도 컸었다. 그러나 ‘법망’의 역사연원을 동아시아 고전문헌에서 탐구하다 보니, ‘국법’을 ‘그물’에 비유한 개념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용어는, 비록 사기史記에 국법을 가리키는 듯한 ‘문망(文罔=文網)’이 1회 나오지만,²⁾ 명확한 건 한서漢書에 나오는 ‘금망禁罔’이고, 후한서에 비로소 ‘법망’이 등장함을 발견하고 다소 의아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대장경을 열람하면서 뜻밖에도 동아시아 고전 및 사료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그물’ 비유를 발견하고 참신한 충격과 환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법망’ 용어 자체가 불교 전래와 함께 한역漢譯 불전佛典에서 직접 유래했거나 차용되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말하자면 후한 때 공식 전래한 불교의 한역漢譯 경전에 등장한 ‘법망法網’이 직간접으로 동아시아 법문화에 삼투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지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즉, 후한서는 남조南朝 송宋에 범엽范曄이 편찬한 것인데, 후한 때 기록(사료)을 직접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범엽이 당시 언어로 기술한 건지는 불분명하므로, ‘법망’ 자체가 ‘후한’ 때 쓰인 용어라는 확증은 없

1) 老子 제73장: “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攄然而善謀, 天網恢恢, 疏而不失.”

2) 史記, 卷124, 游俠列傳 第64: “以余所聞, 漢興有硃家、田仲、王公、劇孟、郭解之徒, 雖時扞當世之文罔, 然其私義廉絜退讓, 有足稱者. 名不虛立, 士不虛附.”

다. 그리고 후한 삼국시대에 이미 ‘법망’에 관한 개념 용어가 등장해 남북조 시대에는 아주 보편으로 쓰인 역사기록에 비추어보면,³⁾ ‘법망’ 자체는 불교경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전통 및 현대 법률용어는, 예컨대 십악十惡·릉지처사陵遲處死·계약契約·상속相續·조정調停처럼 직간접으로 불교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이 확인된다.⁴⁾

이에 본고는 불교 대장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법과 그물의 비유를 대강 살펴보면서, 특히 동아시아 국법에 삼투한 ‘법망’의 역사연원과 철학정신을 집중 탐구하고자 한다. 기본 연구방법이 대장경 원문을 해독하고 역사적 문헌자료의 분석비평(corpus analysis)을 통해 논지를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인⁵⁾ 관계로, 글의 구성·전개에서 일부 비슷한 내용의 문헌자료들이 다소 단조롭고 지루하게 열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독자 제위께서는 조금 따분하게 느껴지더라도 무미건조한 사료史料에 무궁무진한 함의를 해석 음미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물론 뜻밖에 황재도 있으려니, 일반 국법의 그물 비유에 담긴 편협한 함의를 아주 풍부하게 확대·심화하는 불전의 ‘법망’ 해석론도 새롭게 발굴해 소개할 것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망’의 철학정신이 훨씬 고상하고 우아한 이상경지로 양양 승화됨을 느낄 것이다.

II. 불교 대장경에 다양한 그물 비유 개황

불교 대장경에는 동아시아 고전보다 훨씬 다양한 그물 비유들이 자주 나온다. 고리(려) 대장경高麗大藏經/중화전자불전中華電子佛典을⁶⁾ 검색하면, 기본 그물 개념으로 ‘망網’은 6,115/23,259번, ‘罔-网’은 684-46/7,198-73번, ‘어망魚(漁)網’ 15(3)/54(14)번, ‘法網(罔)’ 142(2)/133(19)번 나온다. 불교에 독특한 그물 비유로 ‘법망’과 상통하는 ‘범망梵網’이 182/2,513번, ‘계망戒網’이 7/21번 나온다.

한편, 장엄의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찬란한 빛을 상징하는 ‘광망光網’이 91/241번, ‘광명망光明網’이 141/435번, ‘明網’ 232/459번(이 가운데 ‘무명망無明網’ 25/40번은 제외) 나오고, 불꽃으로 ‘화망火網’ 1/3번, ‘염망焰網’ 18/33번, ‘염망炎網’ 1/1번 나오며,

3) 김지수,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 정신-”, 경북대 법학 연구원, 법학논고, 제71집, 2020.10. 405-414쪽 참조.

4) 김지수, “동아시아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 영향”, 외법논집 제42권제2호, 2018.5. 89-124쪽 참조.

5)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본고의 “연구방법론으로 ‘귀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언어학계에서 활용하는 코퍼스 분석(corpus analysis)이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해주셨다. 필자가 서양학문에 연구방법론이나 개념용어에 익숙하지 못해 대강 의미로 적었는데, 자상한 질정에 감사한다.

6) ‘高麗’는 ‘麗’가 ‘鄰知切, 音離, 支韻’으로, 역대 정사正史와 자전에도 독음이 ‘리’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왔는데, 우리는 어인 까닭인지 ‘고려’로 잘못 읽고 있다. 서길수, “‘高句麗’와 ‘高麗’의 소릿값(音價)에 관한 연구”, 高句麗研究 27집, 2007, 27-105쪽; 서길수, 고구리·고리사 연구1-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高句麗, 여유당, 2019년 초판 등,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꽃으로 ‘화망華網’ 51/146번, ‘화망花網’ 7/5번 나온다. 제석천 ‘제망帝網-인드라마因陀(陀)羅網’이 144-95(47)/1,390-10(594)번, 천상극락에 ‘라망羅網’ 814/2,059번, ‘보라망寶羅網’ 71/139번, ‘보망寶網’ 499/1,154번, ‘주망珠網’ 98/342번 나온다.

반면, 죄악에 걸려든 속박의 의미로, ‘형망刑網’ 6/22번, ‘죄망罪網’ 5/22번, ‘악망惡網’ 2/12번, ‘업망業網’ 31/81번, ‘의망疑網’ 645/1,533번, ‘치망癡網’ 44/72번, ‘욕망欲網’ 46/82번, ‘애망愛網’ 106/319번, 생(사)망(生)死網 (10)15/(19)25번, ‘마(라)망魔(羅)網’ 88(28)/268(64)번, ‘사망邪網’ 38/135번, ‘사견망邪見網’ 30/61번, ‘번뇌망煩惱網’ 24/67번이 나온다. 이러한 다양한 그물 비유개념의 검색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網罔網	梵網	法網	法律	正法	見網	邪見網	僧網	戒網	教網	憲網	世網	禁網	升網	俗網
高麗藏 KT	6,115 684罔 848網	182 2罔 4網	142 2罔 31網	1,565	15,144 28政法	118 (88) 3罔	30	3 3罔 7網	7	69 7罔	39	16 1網	1	6 1罔	19
중화전 자불전 CBETA	23,259 7,198罔 9,022網	2,513 2罔 9網	133 19罔 92網	2,886	36,768 69 政法	435 (374) 20罔 7網	61	65 70網	21	378 48罔	13	148 15網	12 2罔	22 3罔	63
비고	‘網’은 KT에 46회, CBETA에 73회, ‘法網’은 經에 15회, ‘刑網’은 唐 이후 중국서에만 나옴.														

	天網	帝網	因陀羅網	因陀羅網	寶網	寶羅網	羅網	珠網	光網	光明網	明網	華網	花網	焰網	智網	衆網
高麗藏 KT	30 6罔 2網	144 2罔 5網	47	95 (142)	499 3罔	71	814 1罔	98 3罔 1網	91 1罔 1網	141 3罔	232	51	7	18 1火 1炎	2 2知 網 3慧 網	16 3網
中華電 子佛典 CBETA	501 156 罔 21網	1,390 6罔 8網	594	10 (604)	1154 6罔	139	2,059 3罔	342 18罔 7網	241 65罔 5網	435 20罔 7網	459	146	5	33 3火 1炎	10 4知 網 慧 網5	72 35網

	愛網	欲網	魔(羅)網	鐵網	疑網	惑網	邪網	邪見網	無明網	癡網	業網	(生)死網	煩惱網
高麗藏 KT	106	46 /1 慾	88 (28)	90	645 1罔 6網	28 4罔	38	30	25	44	31	15 (10)	24
中華電 子佛典 CBETA	319	82 /5慾	268 (64)	296	1,533 8罔 8網	83 6罔 2網	145	61	40	72	81	25 (19)	67

Ⅲ. ‘불법佛法’의 개념과 한역 불경에 ‘법망法網’

우선 ‘불법’은 세속 국‘법’이 아니라서 법학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리키는 법(dharma)으로 실정법은 아니다. 불교의 법은, 첫째 모든 법 중 최고 진리로서 열반, 둘째 열반을 얻는 기본 방편으로서 사성제 四聖諦와 팔정도 八正道, 셋째 팔정도를 돕는 모든 선법과 진실한 말씀을 포괄한다.⁷⁾ 이는 도가나 유가에 ‘道’의 개념과 상통한다. 열반의 법은 무위와空的 본체로서 도이고, 팔정도와 만법은 궁극의 도에 다가가는 ‘길’로서 수행에 선방편인 도이다. 따라서 불법(dharma)은 세속법에 근원인 ‘자연법’ 개념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불교 경전에 ‘자연법 自然法’ 개념도 다수 등장하는데,⁸⁾ ‘자연’이란 ‘저절로 그러하다’는 로자 개념과 상통하며, ‘자연법’은 ‘저절로 그러한 법’이란 뜻으로 우주자연법칙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이다. 특히 동서고금에 우주자연법칙과 인간 사회규범에 공통핵심으로 꼽히는 황금률에도 불교 자연법이 강조된다. 불교 황금률은 편협한 ‘인본人本주의’를 벗어나, 중생평등 원칙의 ‘생본生本주의’로서 미래 희망이 될 우주 자연법이라 할 것이다.⁹⁾ 따라서 본고에서 탐구하는 불교 ‘법망’도 크게 봐서 로자의 ‘천망天網’에 상응하며, 국법(실정법)의 원천으로서 ‘자연법’ 차원에서 법철학에서 다룰 가치와 필요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본고 연구주제에 가장 핵심인 ‘법망’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이 ‘법망’은 산스크리트어 Dharma-jāla, 팔리어 Dhamma-jāla의 의역으로, 국법체계를 상징하는 세속적 ‘법망’과 상통하는 속성이 있으나 근본연원은 다른 게 사실이다. 오히려 로자가 말한 ‘천망’에 더 가깝고 친숙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흔히 쓰는 ‘법망’ 용어의 어원유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까닭에, 본고에서 경전-주석-법문어록으로 나눠 우선 집중 검토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한역 불교경전에서 가장 오래된 ‘법망’ 용어는 아마도 삼국시대 오로부터 번역된 불설법망륙십이견경 佛說梵網六十二見經에 등장하는 듯하다.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심오한 청정범행 가르침을 ‘梵網’경(Brahma-jāla sutra)이라 명명하며, 과거 구루 진불拘樓秦佛 때는 ‘법망’경이라 부르고 가섭불迦葉佛 때는 ‘견망見網’經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물 網’으로 비유한 연유도 나온다. 노련한 어부가 촘촘한 그물을 작은 연못에 던지면 모든 물고기가 그물 안에 걸려들어 빠져나갈 수 없듯이, 외도(異道) 人도 62사견邪見의 그물 안에서 머물며 왕래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유한다.¹⁰⁾ 즉, 사건邪見 자체가 수행자를 얽매어 옥죄는 그물이 되고, 따라서 생사윤회

7) 龍樹菩薩造, 鳩摩羅什譯, 大智度論釋發趣品第20(卷49): “求法者, 法有三種, 一者, 諸法中無上, 所謂涅槃; 二者, 得涅槃方便, 八聖道; 三者, 一切善語實語, 助八聖道者, 所謂八萬四千法衆, 十二部經, 四藏, 所謂阿含, 阿毘曇, 毘尼, 雜藏, 摩訶般若波羅蜜等, 諸摩訶衍經, 皆名爲法.”

8) 高麗大藏經에는 ‘自然’이 무려 9,221번이나 나오고, ‘自然法’이란 단어도 무려 102번이나 나온다. 그밖에 自然律 1번, 自然法律 3번, 自然法教 12번이 나온다.

9) 이상 ‘佛法’에 대한 개념정의는, 김지수, “佛敎 경전에서 정신(마음) 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전북대 법학연구 제39집, 2012.9. 452-454쪽 참조.

자체도 그물로 비유된다. 거꾸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올바른 견해는 청정한 가르침 그물로서 ‘범망=법망=(정)견망’이란 등식의 전통을 지닌다. 남전南傳(빨리어) 梵網經에도 그 다른 명칭으로 ‘의망義網’ ‘법망’ ‘梵網’ ‘견망見網’ ‘무상전승無上戰勝’이 나온다.¹¹⁾

그 뒤 동진東晉 때 번역된 60권 화엄경華嚴經에는 보살이 무량무수겁 동안 무량佛을 공양하고 무량중생을 제도하며 닦는 온갖 고행 가운데, 비구 모습으로 나타나 청정계율로 육근을 조복하기도 하고, “더러 자재왕自在王으로 법망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묘사가 나온다.¹²⁾ 그보다 앞서 서진西晉 원강元康 원년(291)에 한역된, 같은 내용의 선행 이역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홀로 떠돌며 거니는 비구로서 마음 고요하고, 더러 국가군주가 되어 법망의 지혜로운 세계에 들기도 한다.”¹³⁾ 두 번역본을 대조해보면,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정의로운 법의 그물에 스스로 들어가 그 법망으로 인민을 잘 다스린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제정일치, 천인합일, 범아일여의 고대에 지혜로운 내성외왕이 청정한 자연법에 합치하는 정의로운 국법으로 나라백성을 다스리니, 여기 ‘법망’은 성숙을 겸비한 개념이 되겠다.

또, 60권 화엄경에는 선재善財동자가 순방하는 선지식 중 묘덕수호제성야천妙德守護諸城夜天이 아주 오랜 옛날 리구광명離垢光明劫 때 법계묘덕운法界妙德雲세계에서 출현한 수미산須彌山 티끌 수만큼 무수한 부처님을 시봉했는데, 최초로 법해되음광명왕法海雷音光明王佛이 출현한 뒤 차례로 이어져 27번째로 법망각묘덕월여래法網覺妙德月如來가 출현했다고 설한다.¹⁴⁾ 또 수隋 때 번역된 오천오백불명신주제장멸죄경五千五百佛名神呪除障滅罪經에는 “나무법망정정공덕월여래南無法網清淨功德月如來”가 나온다.¹⁵⁾

당唐 때 번역된 80권 화엄경에는 선재동자가 순방한 선지식 중, 부동우바이不動優婆夷가 자신이 구해 얻은 일체법무염족삼매광명一切法無厭足三昧光明으로 일체 중생을

10) 佛說梵網六十二見經, 吳 支謙譯: “若有異道人…合皆在是六十二見, 往還其中, 於彼住在, 厥中生俱會行, 於網中生死不得出. 譬如工捕魚師, 若捕魚弟子, 持罽目網下著小泉中, …水少, 諸魚浮游, 皆上網上. 往往在其中不得出. 如是諸異道人…在其中生死, 俱合會行, 在羅網中不得出. …拘樓秦佛、如來、無所著、等正覺說是經時, 名為‘法網’; 迦葉佛、如來、無所著、等正覺說是經時, 名為‘見網’; 今我亦說是經, 名為‘梵網’.”

11) 梵網經 長部經典, 通妙訳: “阿難! 今汝應以此法門, 名之為‘義網’而奉持、名之為‘法網’而奉持、名之為‘梵網’而奉持、名之為‘見網’而奉持、名之為‘無上戰勝’而奉持之.”

12) 大方廣佛華嚴經卷第43, 東晉 佛跋陀羅譯, 離世間品第33之8: “或現比丘像, 淨戒調諸根, 或現自在王, 或現入法網, …”

13) 度世品經卷第6, 西晉 竺法護譯: “或復獨遊步, 比丘心寂寞; 或復為國主, 入法網慧界.”

14) 大方廣佛華嚴經卷第54, 佛跋陀羅譯, 入法界品第34之11: “佛子! 乃往古世, 過轉世界微塵等劫, 有劫名離垢光明, 時有世界, 名法界妙德雲, …彼世界中, 有四天下, 名莊嚴幢; 彼四天下, 有王都城, 名普寶華光; 於彼城外, 有道場名法王宮殿光明; 其道場上, 有須彌山微塵等佛, 出興于世; 其最初佛, 號法海雷音光明王. …次有如來, 名法網覺妙德月; …” 모두 99번째 여래 명호까지 열거한 뒤 최후 佛은 명호가 法界城明淨智燈여래라고 전하며, 같은 내용의 후대 이역본인 40권본 大方廣佛華嚴經卷第22, 唐 般若譯,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는 “次有佛興, 名法網覺勝月”이라고 번역한다.

15) 五千五百佛名神呪除障滅罪經卷第1, 隋 闍那崛譯: “南無法網清淨功德月如來”

기쁘게 미묘한 法을 설하는 걸, 마치 금시조金翅鳥가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다가 중생대해眾生大海에서 선근이 성숙한 자만 꼭 물어 보리안菩提岸(피안)에 내려놓는 것에 비유하고, 또 능숙 능란한 어부가 正法網을 지니고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 애욕의 물에 허우적거리는 여러 중생을 건져내는 것에 비유한다.¹⁶⁾ 여기서 법망은 죄지은 중생을 포박 구속하는 의미에서 훨씬 더 나아가, 죄악의 바다에서 구출하는 ‘제도濟度’의 의미를 함축한다.

참고로, 유불선 삼교경전을 통달하고 화엄경과 역대 주요 경론 및 주석을 종합 망라해 ‘신화엄경합론’을 번역 출간한, 우리나라 현대 고승 탄허呑虛스님도, 화엄경에 친숙한 인연인지 불교 수행법문을 고기잡이 그물로 비유해 눈길을 끈다. 상근기를 위한 참선법은 고래잡이 그물로, 중근기를 위한 관법·정관(靜觀: 空)·환관(幻觀: 假)·적관(寂觀: 中) 三觀은 대구·명태잡이 그물로, 하근기를 위한 염불·비밀(주문)법문은 새우·멸치잡이 그물로 각각 대비한다.¹⁷⁾

한편, 당唐 때 번역된 법신찬法身讚에도, 부처님이 무량 유정有情을 조복시켜 단박에 청정하게 하는 교화를 찬탄하여, “삼계 바다에 조복망調伏網을 던져 묘법망妙法網을 펼치고 (중생을) 두루 성숙시키나니, 조복망으로 두루 성숙시켜 바다 물살에 표류하는 자들을 두루 건져낸다.”고 비유한다.¹⁸⁾

량梁 때 번역된 대승정왕경大乘頂王經에는 선사유善思惟동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계송에서, “세존 무상사無上師께서 저를 위해 출세하시어 설법하심에, 온갖 마장의 그물(魔網)을 영원히 끊고 정법 그물을 드러내신다.”고 비유한다.¹⁹⁾ 비슷한 시기 번역된 대승보운경大乘寶雲經에도 부처님께 귀의하는 계송에서, 본래 생멸이 없고 자연스런 법성法性を 체득해 중생들한테 사자후로 법륜을 굴리시며, 적시에 정도正道를 설해 중생들이 진여眞如를 통달해 열반에 들도록 기별記別을 주시며, 세 근기를 흰히 통달하고 시기時機를 꿰뚫어 교화한 중생들이 법망에 여의원만하다고 찬탄한다.²⁰⁾ ‘마망魔網↔법망’의 대조가 특히 눈에 띈다.

16) 大方廣佛華嚴經卷第66, 唐 實叉難陀譯, 入法界品第39之7: “時, 不動優婆夷以菩薩柔軟語、悅意語、慰諭善財, 而告之言: ‘善男子! 我唯得此求一切法無厭足三昧光明, 為一切眾生說微妙法, 皆令歡喜. 如諸菩薩摩訶薩, 如金翅鳥, 遊行虛空無所障礙, 能入一切眾生大海, 見有善根已成熟者, 便即執取置菩提岸; 又如商客, 入大寶洲, 採求如來十力智寶; 又如漁師, 持正法網, 入生死海, 於愛水中, 渡諸眾生.’” 같은 내용이 이역본(40권본) 大方廣佛華嚴經卷第14, 般若譯,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 나온다. “又如漁師有具足力, 持正法網, 入生死海, 渡諸眾生.”

17) 탄허, 탄허呑虛錄, 휴, 2012년 초판, 138-140, 185-6쪽 참조.

18) 百千頌大集經地藏菩薩請問法身讚, 唐 不空譯: “無量調伏有情, 頓作令清淨; 無量佛變化, 頓時得暫變. 於三界海中, 而擲調伏網; 舒展妙法網, 普遍令成熟. 則以調伏網, 普遍令成熟; 普遍令舉出, 於中漂流者.”

19) 大乘頂王經, 梁 月婆首那譯: “爾時, 善思惟童子以偈白佛: ‘世尊無上師, 為我故出世, 於此法中說, 異相求唯名. 牟尼出於世, 佛生不思議, 永斷諸魔網, 而現正法網.’”

20) 大乘寶雲經卷第1, 梁 曼陀羅仙共僧伽婆羅譯, 序品第1: “本來無生滅, 法性體自然, 眾中師子吼, 敬禮轉法輪. 時為說正道、時令達眞如、時令入涅槃、或為授記別, 善達三聚性, 時機無不了, 所化諸眾生, 法網如意滿, 怨怒癡等垢, 及餘無量惑, 坐於菩提樹, 以智火燒盡.”

북위 때 번역된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는 야마천夜摩天을 묘사하면서, “만약 자신을 스스로 잘 관찰하여 항상 부정不淨한 줄 알며, 법망을 알아 갖가지 법망의 지식으로 생사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천상에 생겨난다.”고 설한다.²¹⁾ 또 동진 때 번역된 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이 대다라니를 설하고, “여법히 수행하면, 앞에 법망처럼 즉시 증험경지를 얻으리라!”는 표현이 나온다.²²⁾

이상이 현전하는 한역 불경 본문에 나타나는 ‘법망’의 주요 사례이자 함의이다.

IV. 경률經律 주석에 등장하는 ‘법망法網’

이러한 경문상 ‘법망’의 함의에 근거해 이후 여러 고승대덕이 경률을 강의 해설한 각종 주석서에도 다채로운 ‘법망’이 자주 등장한다. 유마경(淨名經) 불국품佛國品에 나오는 보살 명호 해설에 보면, ‘제망帝網’은 환술경幻術經에 나오는 帝網처럼 대사대士(보살)의 신통변화가 환술마냥 자유자재 함을 비유적으로 함축하고, 또 교화가 제왕의 법망 같아서 붙인 명칭이라는 구마라집 주석이 눈에 띈다. ‘명망明網’은 부처님 32상 중 하나인 손바닥 망만網縵이 광명을 방출해서 취한 명칭이고, ‘梵網’보살은 범천에 4 범행(梵行, 무량심)인 자비희사慈悲喜捨를 그물눈처럼 많이 행함을 가리킨다고 한다.²³⁾

이에 덧붙여 후대 고승은, 더러 ‘제망帝網’보살은 제왕 법망처럼 무량무수 法그물로 일체 번뇌와 중생을 망라함을 뜻하고, ‘明網’보살은 사익경思益經에서처럼 밝은 광명을 법망으로 삼음을 뜻하며, ‘梵網’보살은 梵이 청정이니 청정법망을 올바르게 관조해 내외 일체 중생을 망라한다고 풀이한다.²⁴⁾ 또 수隋 장안章安 관정灌頂 법사는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에서 불교의 ‘慈’를 설명하며 국헌國憲과 불법佛法을 비교하는데, “국가의 엄형은 혹독함이 근본인데, 불교의 법망은 자비가 종지로서, 그름을 들어 옳음을 드러낸다.”고 대비한다.²⁵⁾

한편, 불교 계율 중 중요한 사분률四分律 주석서에 ‘범망=법망’ 관련 내용이 다수 나

21) 正法念處經卷第41, 元魏 瞿曇般若流支譯, 觀天品之20(夜摩天之6): “若善自觀身, 常見其不淨, 知自身如是, 彼則生天上. 若能知法網, 種種法網知, 不喜樂生死, 彼則生天上.”

22)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卷第1, 晉代失三藏名今附東晉錄: “我觀世音菩薩欲說大陀羅尼…如法行者, 即得證地, 如前法網.”

23) 淨名經集解關中疏卷上, 道液集, 佛國品第1: “帝網菩薩: 什曰, 幻術經, 名帝網也. 此大士神變自在, 猶如幻化, 故借帝網以名之. 又曰, 大士施化, 如帝王法網也. 明網菩薩: 什曰, 明網, 自說手有網縵, 放光明也. …梵網菩薩: 什曰, 梵, 四梵行慈悲喜捨, 網言其多.”

24) 維摩羅詰經文疏卷第4, 隋 智顗撰: “帝網菩薩, 譬如帝王法網, 無量一心三觀, 觀三諦理具足無量諸法之網, 網一切煩惱及眾生. 明網菩薩, 如思益經, 明光明為法網, 大智論釋, 放光作網, 魚喻一心三觀, 觀心光明網. …梵網菩薩, 梵名清淨, 正觀清淨法網, 內外一切眾生也.” 維摩經略疏卷第四, 天台沙門湛然略: “梵網者, 正觀清淨法網, 網諸煩惱及一切眾生.”

25) 大般涅槃經疏卷第7, 隋 章安頂法師撰, 唐 湛然再治, 長壽品: “次從譬如國王去, 明口行慈又二. 一先舉國憲, 次明佛法, 後結治罪. 初國之嚴刑, 以酷為本; 二佛之法網, 以慈為宗, 舉非顯是.”

온다. 우선 당唐대 유명한 도선道宣 율사는 ‘승망대강僧網大綱’편에서, 승려들이 범하기 쉬운 여러 잘못들을 열거해 모두 부처님 종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뒤, 진실로 버리(綱維)가 법망에 의지하지 않아 부화뇌동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말법시대에 중생 악업이 몹시 중해 회개할 줄 모르고 청정 비구도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나維那 상좌는 시비를 잘 분간하고 청정계율을 설해 승중僧眾을 올바르게 인도해 비법非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고개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법망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²⁶⁾ 또 당唐 지홍志鴻스님은 ‘중망유지眾網維持’란 결계結界·설계說戒·자자自恣·갈마羯磨 등 법에 모두 승가대중이 법망을 유지하는 거라고 풀이한다.”²⁷⁾

唐 대각大覺스님은 사본를 주석에서 ‘법망’을 특히 많이 애용한다. 우선 행의行儀 현양에서 ‘끊어진 현강玄綱을 묶어 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다.

“마치 그물에 버리가 있어 그물눈들을 정돈하듯, 불법의 그물은 계戒를 버리로 삼으니, 만약 지계持戒를 저버리면 그 버리가 끊어짐이요, 버리가 끊어지는 즉시 불법망佛法網은 어지러워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망敎網을 유지하여 불법이 단멸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끊어진 현강玄綱을 묶어 맴이다.”²⁸⁾

또 ‘중망유지眾網維持’에서 眾은 僧眾이고, 網은 법망이며, 유지는 연결해 묶는 것이니, 승중의 강망綱網을 유지함이라고 해설한다.²⁹⁾ 수욕시비受欲是非에서는 도선율사처럼, 비법非法의 일로 眾網 가운데 걸려들어 곤장처벌을 받는 승려 사례들은 모두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며, 진실로 강유綱維가 법망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³⁰⁾ 특히 ‘승망대강僧網大綱’에 대한 상세한 해제解題가 눈에 띈다.

“僧網大綱이란 세간 그물에 버리가 그물눈을 바르게 정돈함을 차용한 비유로, 이편은 승가 법망에 기강이다. 주지住持에 대요大要를 綱이라 하고, 세세한 행위에 의궤儀軌를 網이라 하니, 僧眾 그물눈(網目)에 강령이라 할 수 있다. 설문說文에 ‘그물을 유지

26)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上(之2) 唐 道宣撰, 僧網大綱篇第7: “如是眾例, 皆非聖旨. 良由綱維不依法網, 同和而作. 惡業深纏, 永無改悔. 眾主有力, 非法伴多. 如法比丘, 像末又少. 縱有三五, 伴勢無施. 故佛預知有, 不令同法.”;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上(4) 說戒正儀篇第10: “上座不教, 致令僧眾俱同非法. 然處眾首, 是非須知, 不得低頭合眼, 不知法網. 示一律儀, 永成常準. 故僧祇中, 說戒說法, 並有上座法(云云).”

27) 搜玄錄解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錄卷第1, 唐 志鴻撰: “眾網維持等者, 結界說戒, 自恣羯磨等法, 並是眾家維持法網.” 後唐 景霄찬, 四分律鈔簡正記卷第3에 같은 내용 나온다. “眾網維持者, 謂受說安恣等, 並是僧維持法網也.”

28)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1, 唐 大覺撰: “紐既絕之玄綱者, 此下是喻說也. 如網有綱, 能整其目, 今佛法之網, 用戒為綱. 若不持戒, 則絕其綱, 綱絕時亂佛法網. 若有人能維持教綱, 不令斷滅佛法, 是名紐絕玄綱.”

29)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2, 四分律鈔批卷第2本: “眾網維持者, 眾是僧眾, 網是法網也, …明上學不精博等人, 執見不同, 維持僧眾之綱網, 法則乖異也, 謂弘持眾法綱網之人, 故曰眾網維持也.”

30)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3, 受欲是非篇第4: “若非法事如眾網中者, …對僧杖罰, 如是等例, 皆非聖旨, 良由綱維不依法網.” 後唐 景霄찬, 四分律鈔簡正記卷第7上, 第七僧綱篇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綱維者, 綱紀維持也. 法為敎法, 網謂綱目, 不依敎法綱自故.” 이밖에 四分律鈔簡正記卷第9에는 ‘眾法綱網須成’나 ‘方便說法網’이 나오고, 卷第16에는 “大師亦自製一卷圖經, 并護持迂眾等者, 兼明敎護三衣, 迂正眾僧之法網等.”이 나온다.

하는 큰 밧줄을 綱이라 한다.’ 승법僧法도 만약 어기면(어그러지면), 문란해서 실마리를 잃게 되니, 이편을 들어 올리면 정돈되지 않을 법이 없어서, 위 서문에서도 ‘이미 끊어진 현강玄綱을 묶어 맨다.’고 한 뜻이다. 대중의 주지도 삼강三綱이 있어 승망僧綱을 취하니, 망綱은 강綱으로 말미암는다. 綱은 곧 眾僧이니, 대중주지가 승중을 유지함은, 마치 버리가 그물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³¹⁾

따라서 “스스로 당시 그물에 혼미하면, 죄와 복을 일깨워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의時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법망을 쓸 줄 모른다. 이는 세속감정과 흥진에 오염되어 교법敎法에 혼미함이니, 요즘 사승師僧들이 색·성·향·미·촉·법 등 6진塵에 빌붙어 오염된 탓에, 거룩한 가르침을 분명히 해오하지 못해 법망에 혼미한 것이다.”³²⁾ 못 법을 잘 수행해 성취하려면, 이러한 대중 법망을 받아들이는 의리를 잘 알아야 한다.³³⁾

또 파계승이 충간忠諫을 어김에서도, 綱은 법이고 諫은 법망인 까닭에, ‘망생網生’이란 승잔죄행僧殘罪行이 교망敎綱으로부터 생김을 뜻한다. 악행자는 반드시 교망을 어기는데, 이미 (금계를 명한) 교망을 선포한 까닭에 죄를 얻게 되어, 죄가 그물로 말미암아 생긴다.³⁴⁾ 이는 국법 체계에서 “법률 없이 범죄 없고, 범죄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상응하는 불교 계율법망 원리다.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려 제자들을 가르칠 초기에는 본디 계율이 없었다. 나중에 승가대중이 많아지면서 뜻하지 않는 엉뚱한 짓과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이제議事以制’ 임기응변 방식으로 필요한 계를 하나씩 제정하면서 불교 ‘법망’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계율 법망이 생긴 뒤에 파계 범죄가 비로소 등장한 것이다. 이렇듯 법망을 뚫고 빠져나가는 짓을 ‘탈루심망脫漏深綱’이라 부르는데, 수행승으로서 검소한 자기절제(儉約)가 없이 불교법망을 어기고 빠져나가 법망 안에 머물지 않기에 ‘샬 漏’로 표현한다.³⁵⁾

송宋 원조元照스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31)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4, 僧綱大綱篇第7: “言僧綱大綱者, 借喻世網之綱, 能正其綱目. 今此一篇, 是僧家法網之綱紀也. 住持之大要曰綱, 細行之儀軌是綱, 亦得云僧眾綱目之綱領, 故曰也. 說文云: ‘持綱大繩曰綱也.’ 僧法若乖, 紊亂失緒, 舉此一篇, 無法不整, 故上序云: ‘初既絕之玄綱’ 即斯義也. 濟云: 今言眾主三綱, 亦取僧綱, 綱由綱也. 綱即眾僧也. 以眾主能持於僧故, 如綱能持其綱也.”

32)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5: “自昏時網者, 謂不解示語罪福, 是不識時宜, 不用法網也. … 而世情塵染, 每昏敎法者, 謂今時師僧, 附六塵, 為色聲等染, 不能明解聖敎, 昏於法網也.”

33)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6, 自恣宗要篇第12: “上來至此, 始自標宗顯德, 終乎自恣宗要, 有十二段文, 是其眾法, 中間非無別人對首心念之法, 然皆為成眾法之行, 今若舉宗往攝, 皆是眾法網納之義也.”

34)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8: “此違諫戒逮于下篇者, … 如調達是主. 破僧違諫也. 三閭等四是伴. 助破僧違諫也. … 不妨惡行行寔網生者, 立云, 綱是法也. 明其汚家惡行, 非是殘罪, 以違諫故. 諫是法網, 因違諫故, 故結殘也. 罪從違諫法下而生, 諫是法網, 故云網生. 欲明僧殘罪行, 從敎網中生也. … 諫事雖廢, 有惡行者, 必違敎網, 既羅敎網, 故致獲罪. 罪由網生, 故曰也. 謂既作惡行, 行羅網也.”

35)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卷第13, 對施興治法篇第20: “脫漏深綱者, 立謂敎網也, 為僧既無儉約, 違佛教網, 名為漏也. 不在法網之中, 故曰漏也.”

은, 둘 다 법망에 어긋나 모두 똑같은 죄를 얻는다.”고 말한다.³⁶⁾ 여기서 “둘 다 법망에 어긋난다는 말은, 전자는 부처님이 통제된 의도에, 후자는 부처님이 열어준 의도에 각각 어긋나, 모두 동일한 범죄가 된다.”고 풀이한다.³⁷⁾ 이상에서 僧網=教網=法網의 등식관계로 호용됨을 알 수 있다.

V. 고승 법문 및 어록에 나타난 ‘法網’

역대 고승대덕의 법문이나 어록에도 다채로운 ‘법망’이 애용된다. 천태종 교리를 완성한 수隋 지자智者 대사는 법망에 술한 그물눈을 펼치는 원리를 명쾌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그는 명저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 안심법문을 총 512문으로 분류하며, 세간 의사가 치료한 병은 재발할 수 있지만, 의왕인 여래의 치료는 재발이 없는 궁극 안심安心법문인데, 다만 중생 심행心行이 각각 달라 대치법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³⁸⁾ 부처님 8만4천 법문 원리와 같다. 만약 1구절 진리에 마음이 평안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지만, 만약 불안하다면 정교한 방편으로 마음을 평안케 함이 긴요하다. 이는 마치 새가 걸려 붙잡히는 그물눈은 단 하나뿐이지만, 그물눈 하나만으로는 새를 잡을 수 없기에, 모름지기 수많은 그물눈을 지닌 법망을 넓게 펼쳐 중생 심행心行(탐진치 삼독의 번뇌망상)의 새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⁹⁾

얼마나 기막힌 비유인가?! 이 비유는 송대 유명한 고승 영명永明 연수延壽 선사도 명저 종경록宗鏡錄(권제44)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 비슷한 발상은 이미 전국시대 장자莊子が 창안했다. 혜자惠子が 莊子の ‘무용無用’론을 힐난하자, 장자가 반문한다. “無用の 원리를 알아야 비로소 用을 말할 수 있소. 무릇 대지가 무척 광대하지만, 사람이 쓰는 것은 발 딛는 땅이면 족하오. 그렇다고 발 바깥을 파내려가 황천에 이른다면, 그래도 사람이 그 땅을 (안심하고) 쓰겠소?” 혜자가 ‘無用’이라고 답하자, 莊子は “그래서 無用이 유용한 게 분명하다.”고 빙그레 웃는다.⁴⁰⁾ 이는 老子가 물레로 유형의 그릇을 만들어도

36) 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濟緣記2之3, 宋 元照述: “前門不應為而為, 此門應為而不為, 兩乖法網, 雙獲一罪.”

37) 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正源記卷第4, 允堪述, 釋諸界結解篇第2: “兩乖法網者, 前乖佛制意, 後乖佛開, 前後各犯不應之吉, 故曰一罪.”

38) 부처님 의왕이 법약으로 중생의 번뇌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은, 김지수, “佛教 경전에서 정신(마음) 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전북대 법학연구 제39집, 2012.9. 447-496쪽 참조.

39) 摩訶止觀卷第5(上), 隋 智者大師說, 門人灌頂記: “今隨根隨病迴轉, 自行化他, 有六十四. 若就三番止觀, 則三百八十四, 又一心止觀, 復有六十四, 合五百一十二. 三悉檀是世間安心, 世醫所治, 差已復生. 一悉檀是出世安心, 如來所治, 畢竟不發, 世出世法, 互相成顯. 若離三諦, 無安心處. 若離止觀, 無安心法. 若心安於諦一句即足. 如其不安, 巧用方便, 令心得安. 一目之羅, 不能得鳥; 得鳥者, 羅之一目耳. 眾生心行, 各各不同, 或多人同一心行, 或一人多種心行. 如為一人眾多亦然, 如為多人一人亦然. 須廣施法網之目, 捕心行之鳥耳.” 止觀義例纂要卷第5, 송從義撰, 十二料簡에도 같은 내용이 실림.

우리가 정작 쓰는 곳은 그릇 안쪽에 텅 빈 공간이고, 여러 유형의 골격으로 구성된 집도 빈 방을 사용하므로, 有가 이롭지만 無가 쓰인다고 지적인 원리와 상통한다.⁴¹⁾ 현대 국 법체계에도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변용해 해석한다면, 범죄가 항상 발생해 법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한두 죄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망을 펼쳐둘 필요가 있다고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宋 이후 어록에는 고승대덕의 수행력 및 교화력을 송축하는 시문으로 자주 등장한다. “(知禮)십법 十法의 큰 수레를 운행함은 불지佛地에 가지런해지길 기약함시오,

팔교八教의 法網을 펼침은 사람 물고기 건져 올림을 귀히 여김이라!”⁴²⁾

불조佛祖 전통을 기술하면서, 계戒·정定·혜慧 삼학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불교는, 부처님(法王) 당시에는 일도一道로 청정하고, 일음一音으로 연설해도 누구나 근기에 맞게 감화를 얻었지만, “학림鶴林이 사라지고 법망이 흩어짐에 이르러, 신족통이 숨고 종파의 길이 달라졌다.”고 비유한다.⁴³⁾

일찍이 唐 고종은 대자은사大慈恩寺 현장玄藏법사 역경을 보고 친히 쓴 ‘술성기述聖記’에서, 정교正教를 현양顯揚하는 지혜와 미언微言을 천명하는 현명함을 칭송하면서, “법망의 기강을 열어 6도도의 정교正教를 홍양해, 중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삼장의 비밀스런 빛장을 푼다.”고 역경공덕을 찬탄했다.⁴⁴⁾ 송 태종도 신역삼장성교新譯三藏聖教에 친히 쓴 서문에서 불교의 위대함을 극찬하며, “의리義理는 유현幽玄하고 진공真空은 측량할 수 없으며, 만상萬象을 포괄하되 비유는 무한하다. 법망의 기강을 장악하여 무제無際의 정교正教를 펼치니, 사생四生을 고해에서 건져내고 삼장을 비언祕言에서 풀어낸다.”고 비유했다.⁴⁵⁾

당唐 리통현李通玄 장자長者는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에서 대비인과大悲因果를 설명

40) 莊子, 雜篇, 外物第26: “惠子謂莊子曰: ‘子言無用.’ 莊子曰: ‘知無用而始可與言用矣. 夫地非不廣且大也, 人之所用容足耳. 然則廁足而墊之, 致黃泉, 人尚有用乎?’ 惠子曰: ‘無用.’ 莊子曰: ‘然則, 無用之為用也, 亦明矣.’”

41) 老子 제11장: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42) 四明尊者教行錄卷第5, 宋 宗曉編: “法智謝李駙馬啟: …切念(知禮)聲凡玉振, 量淺淵淳. 運十法之大車, 期躋佛地; 張八教之法網, 貴渡人魚.”

43) 佛祖統紀卷第49, 宋 志磐撰, 智者大師傳論: “論曰: 修釋氏之訓者, 務三而已. 曰戒定慧. …昔法王出世, 由一道清淨, 用一音演說. …暨鶴林滅而法網散. 神足隱而宗塗異.” 佛祖歷代通載卷第13, 念常集에도 같은 내용 나옴.

44)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第7, 慧立本 釋彥棕箋: “二十二年夏六月, 天皇大帝居春宮, 奉觀聖文, 又製‘述聖記’, 其詞曰: ‘夫顯揚正教, 非智無以廣其文; 崇闡微言, 非賢莫能定其旨. …開法網之綱紀, 弘六度之正教, 拯群有之塗炭, 啟三藏之祕局.’” 續高僧傳卷第4, 道宣撰, 譯經篇4, 京大慈恩寺釋玄奘傳1; 廣弘明集卷第22, 道宣撰, 法義篇第4之5, 皇太子臣治述, 聖記三藏經序; 佛法金湯編卷第7, 明 心泰編, 真清閣, 唐 高宗조에도 같은 내용 나옴.

45) 佛祖歷代通載卷第18, 念常集: “帝製新譯三藏聖教序, 賜天竺三藏法師天息災文曰: 大矣哉, 我佛之教也. …義理幽玄真空莫測, 包括萬象譬喻無垠. 總法網之紀綱, 演無際之正教; 拔四生之苦海, 譯三藏之祕言.” 隆興佛教編年通論卷第29, 祖琇撰, 聖宋御製附; 佛法金湯編卷第11, 明 心泰編, 真清閣, 宋 太宗조에도 같은 내용 나옴.

하면서, “여래 대자비를 因으로 여래 궁전의 果를 맺으며, 또 보살의 십바라밀행으로 大悲가 생겨나 열 가지 果를 맺는데, 여섯째 지혜바라밀의 大悲行 인과는 불가사의한 마니보왕摩尼寶王으로 그물을 만듬에 지혜로 간택해 여러 법망을 이루고, 또 불가사의한 음보망音寶網으로 궁전을 장엄한다.”고 비유한다.⁴⁶⁾ 또 문수사리보살의 복덕 원광圓光是 청정심이 항상 방출하는 광명으로,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光網이란 법망이 원만하여 가르침의 빛(敎光)을 밝게 비춤이다.”고 설명한다.⁴⁷⁾

고승전에는 지둔支遁스님이 축잠竺潛(法深) 스님의 도덕을 칭송하며, “예전에 경읍京邑에서 법망을 유지해, 안팎에서 모두 흥도의 거장으로 우러른다.”고 말했다.⁴⁸⁾ 동진 안제 룡안隆安 원년(397)에 승가제파僧伽提婆가 경사京師에서 왕공王公 및 풍류명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불경을 번역하고 정법을 펼치는데, 위군衛軍 동정후東亭侯 왕손王琇이 ‘法網道人’한테 ‘아자阿字(阿彌)로 얻는 게 무엇인지?’ 질문했다고 나온다.⁴⁹⁾ 문맥상 ‘법망도인은 별도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주인공 승가제파의 명예로운 별칭으로 여겨진다. 정림靜琳선사는 “상법시대 불교가 동으로 전래해 법망이 비록 장엄하나, 승가위의와 정도正度는 아직 빛나게 선양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염부제를 두루 유람해 부처님의 신령스런 자취를 모두 살펴보고자 했다.”⁵⁰⁾

속고승전을 편찬한 도선道宣율사는 호법護法편 말미에, “대저 경론과 도업은 청심清心에 힘쓰고, 법망의 선양 보호는 돈독하고 원대한 의지다. 의지가 원대하면 환난과 모욕을 무릅쓰고, 마음이 청정하면 엄형중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종합평론을 덧붙인다.⁵¹⁾ 또 자신이 편찬한 광홍명집廣弘明集의 목적을 밝히면서, “廣弘明이란 법망을 홍양 보호하여 식자에게 열어 밝힌다.”고 제목을 풀이했다.⁵²⁾ 거기에 출가 승려도 속가 부모한테 절하라는 황제 조서에 대한 반론이 실렸는데, 그 상소문에는 출가수행이 재가와 판이해서, “마음으로 불계佛戒를 받고 몸으로 부처님 위의를 갖추어, 법망이 현

46) 新華嚴經論卷第9, 唐 李通玄撰: “第三明大悲因果者, 以如來大慈悲為因, 如來所處宮殿為依果. …又以十波羅蜜行隨大悲生, 復成十種依果. 何者為十? …六以慧波羅蜜, 隨大悲行, 外招依果, 得不思議摩尼寶王, 而為其網, 以慧能簡擇成諸法網故, 還得不思議音寶網用嚴宮殿.” 華嚴經合論10에도 같은 내용이 실림.

47) 新華嚴經論卷第33, 唐 李通玄撰: “舍利弗勸諸比丘, 令觀文殊師利菩薩, 福德圓光映徹者, 是心淨之常光, 能令見者歡喜. 光網者, 是法網圓滿, 明其敎光. 嚴身見者, 滅苦故.” 大方廣佛新華嚴經合論卷第90, 같은 내용 나옴.

48) 高僧傳卷第4(義解1), 梁 慧皎撰: “竺潛, 字法深. 年十八出家, 事中州劉元真為師. …(支遁)後與高麗道人書云: ‘上座竺法深, 中州劉公之弟子, 體德貞峙, 道俗綸綜. 往在京邑, 維持法網. 內外具瞻, 弘道之匠也.’” 北山錄卷第4, 神清撰, 慧寶注, 宗師議第7에도 같은 내용 실림.

49) 出三藏記集傳上卷第13, 梁 僧祐撰, 僧伽提婆傳第12: “珣問法網道人: ‘阿字所得云何?’ 答曰: ‘大略全是小未精覈耳.’” 新脩科分六學僧傳卷第1, 元 曇噩述, 晉僧伽提婆전에도 같은 내용 나오는데, ‘阿字’가 ‘阿彌’로 적힘.

50) 續高僧傳卷第20, 道宣撰, 習禪五, 釋靜琳전: “會琳以象敎東漸, 法網雖嚴, 至於僧儀正度, 猶未光闡, 欲遍遊閭浮, 備殫靈迹.”

51) 續高僧傳卷第20, 道宣撰, 護法下: “惟夫經論道業, 務在清心; 弘護法網, 寔敦遐志. 志遠則不思患辱, 心清則罔懼嚴誅.”

52) 廣弘明集統歸篇序卷第29, 道宣撰: “廣弘明者, 言其弘護法網, 開明於有識也.”

격히 다르고 공경이 완전히 구별된다.”고 적었다.⁵³⁾

景德전등록景德傳燈錄에 실린 향엄香嚴 습등襲燈대사 지한송智閑頌에는 “법망은 성글고 신령스런 불꽃은 미세한데, 유월에 누워 옷과 이불 없었네.”라는 시구가 보인다.⁵⁴⁾ 속전등록에는 온총蘊聰 자조慈照선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법망은 끝 없는데, 어찌 도리어 미혹과 깨달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두 통을 하나로 묶어 함께 짊어진다.”고 답변한 선문답이 나온다.⁵⁵⁾

당唐 고종 룡삭龍朔 원년(661)에 서화관西華觀 道士 곽행진郭行真은, “부처님이 법망을 드리우시니, 이는 유형에 뱃사공과 같은지라, 경전 핵심을 통괄하지 않고서야, 누가 능히 (이 법망을) 가벼이 들어 올릴 수 있으랴?”⁵⁶⁾고 찬탄했다. 불법의 현허하고 심오한 종지를 아무나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법을 펼침은 더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에는 서진西晉 때 불경의 전래 및 번역이 가장 활발했는데, “법망의 홍양 보호가 그로부터 크게 일었다.”고 전한다.⁵⁷⁾ 참고로, 축법망쓰法網이 석혜림釋慧林과 서신 왕래한 기록이 나오는데, 다른 전적에는 ‘축법강쓰法綱’으로 나와 오자로 보인다.⁵⁸⁾ 또, 대승입도차제개결大乘入道次第開決은 불교가 너무 방대하고 심오해서 “초학자들이 광대한 법해法海를 바라보고 망연자실하며, 심오한 의산義山을 우러러 영원히 물러날까 저어하여, 드디어 대교大敎의 핵심(樞要)을 간추리고 법망의 대강을 들어 올려, 한 모퉁이나마 보여주고자 이 의기義記를 짓는다.”고 적었다.⁵⁹⁾

한편, 호국경전으로 고리(려)高麗 때 법회를 자주 가진 인왕경에 대한 서문에 보면, “파사닉왕의 질문을 단서로 끌어내, 오인五忍의 법망을 높이 펼쳤다.”고 칭송한 구절이 눈에 띈다.⁶⁰⁾ 파사닉왕이 국왕으로서 국민을 통치하는 보살행을 묻자, 부처님이 복인伏忍·신인信忍·순인順忍·무생인無生忍·적멸인寂滅忍의 5忍으로 선정을 베풀라고 가르친 대목을 가리킨다. 천태조사전승기에는 룡수龍樹부터 형계荊谿까지 9대(世)동안 법통

53) 廣弘明集권제25, 京邑老人程士穎等上請表一首: “出家不拜其親. 欲使道俗殊津, 歸戒以之投附. 出處兩異, 真俗由之致乖. 莫非心受佛戒, 形具佛儀. 法網懸殊, 敬相全別.”

54) 景德傳燈錄卷第29, 宋 道原撰, 讚頌偈詩, 香嚴襲燈大師智閑頌一十九首: “授指:…法網疎靈焰細, 六月臥去衣被.” 禪門諸祖師偈頌下之上(송 如祐錄)에도 동일 내용이 실림!

55) 續傳燈錄卷第1(편자미상), 大鑑下第十世, 首山念禪師法嗣, 襄州谷隱山蘊聰慈照禪師: “問, 寸絲不挂, 法網無邊, 為甚麼却有迷悟? 師曰, 兩桶一擔.”

56) 集古今佛道論衡卷丁, 續附, 唐西明寺釋氏: “維唐龍朔元年(661)春三月, 西華觀道士朝散大夫郭行真敬造. 真惟, 佛道稱聖, 咸作化於含元; 寶乘靈寶, 俱開津於有識. 然則承俗訓, 一風軌於醯章. 佛垂法網, 是舟師於形有, 自非統括經詰, 孰能輕舉?”

57) 大唐內典錄卷第2, 道宣撰, 京師西明寺釋氏撰, 西晉朝傳譯佛經錄第4: “護於晉世, 出經最多. 弘護法網, 由其而起.”

58) 大唐內典錄卷第10, 道宣撰, 法網釋慧林問往返十一首 참조. 다만, 出三藏記集雜錄卷第12, 梁 僧祐撰, 法網釋慧林問往返十一首: 廣弘明集, 僧行篇第5之初, 諸僧誅行狀, 釋法網, 武丘法綱法師誄(宋 慧琳撰) 참조.

59) 大乘入道次第開決, 曇曠撰: “恐初學者, 望法海而忙然, 瞻義山而永退. 遂乃纂大敎之樞要, 舉法網之大綱, 爰示方隅撰茲義記.”

60) 會刻仁王護國般若經疏序: “引出匿王之問端, 高張五忍之法網.”

이 잘 전승되다가, “荊谿가 입적한 뒤 법망이 점차 흩어지고 적통전승이 끊겨, 후대인은 강의만 할 따름이다.”는 탄식도 나온다.⁶¹⁾

고승어록에, “우리 스승 부처님 세존께서 돈점頓漸 2교를 베풀어, 칠취七趣에 빠져 헤매는 중생 구제하시고, 법망을 크게 펼쳐 유위의 복혜福慧 문을 열고, 직상원상直相圓常을 곧게 도와 무상無相의 열반영역에 들게 하시며, 이제二諦 삼승三乘의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8만4천 법문을 열어 특별히 모든 등급을 거두셨네.”⁶²⁾ 선종 5종 중 조동종曹洞宗에 대한 평론에, “말세에 한번 깨달으면 모두 끝났다고 착각하는 마인魔人들을 슬퍼해, 사람들이 견혜乾慧가 많은 까닭에 장래 3루漏를 모두 끊어야 하는 법망을 내보였다. 깨달은 뒤에도 습기가 남은 혼탁한 지혜는 근기와 과위에 직결된다.”⁶³⁾ 명 영각永覺화상의 철산鐵山경瓊선사 찬시贊詩에, “땅 불살라 하늘 연기 자욱해 숨을 곳 없고, 법망이 하늘에 가득한데 바다 밖이 열렸네.”라고 말한다.⁶⁴⁾ 당 도선율사에 대한 찬시에 ‘남산에 법망을 펼쳐, 서국西國의 진규真規를 닮았네.’란 구절도 눈에 띈다. 청정계율로서 ‘법망’을 뜻한다.

명 천계天界 각량覺浪 도성道盛선사는 리태재李太宰한테 보낸 답신에서, 요즘 문자선文字禪에 빠져 많은 불자를 생사윤회에 잘못 타락시키는 세태를, 마치 조괄趙括이 부친(趙奢) 병법서만 읽고서 자만에 빠져 40만 대군을 몰살시킨 사례에⁶⁵⁾ 빗대며, 만약 진정으로 부처나 조사 심법心法을 깨닫는다면, 종횡으로 기민하게 활용하여, 누구도 그 예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탄식한다. 이어 4종 탐욕에 대해 응병시약應病施藥하는 대가법문은 이독공독以毒攻毒, 이병치병以病治病의 원리임을 강조하고, 천하가 모두 탐욕의 늪에 빠졌으니 먼저 욕망으로 껴어 불지佛智에 이끄는 방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히려 탐욕이 없는 사람은 마치 붉은 씨앗이나 썩은 종자처럼 싹틀 기미가 없어, 부처님도 제도할 수 없다고 비유하며, 탐욕 중생을 그 정욕情欲에 따라 미끼 던져 낚으면, 누가 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⁶⁶⁾

참 기이한 인연에 화엄경 법문을 인용해 비유한 설법도 눈에 띈다. 감주淦州 판관 리제천李濟川은 대대로 요饒에 살았다. 전에 흰 비단에 그려 모신 관음보살상이 비바람에

61) 天竺別集卷上, 慈雲大師 遵式述, 慈明大師(慧觀)重編, 天台祖承記(事出付法藏傳): “嗚呼! 荊谿既沒, 法網漸散, 嫡承遂息, 後人皆講訓而已.”

62) 高峰龍泉院因師集賢語錄卷之8, 元 如瑛編, 諸般佛事門, 設斛文: “是故我佛為世尊師, 設頓漸之二權, 救沉迷之七趣, 化四生而為道, 道顯名彰, 統三界以為心, 心空境滅, 大張法網開有為福慧之門, 直相圓常入無相涅槃之域, 演二諦三乘之法, 濟度群生, 開八百四千之門, 特携品彙.”

63) 五宗原, 法藏著, 曹洞宗: “悲末世一悟便了之魔人, 故曰人多乾慧, 示將來三漏須盡之法網, 當知悟餘濁智, 機不離位.”

64) 永覺和尚廣錄卷第20, 道需重編, 諸祖道影贊: “鐵山瓊禪師: 髑髏觸破, 再下一槌, 本無欠少, 須經這回, 龍睛鬼眼尚難識, 萬里無端逐臭來, 熏天炙地無藏處, 法網彌天海外開.”

65) 趙奢、趙括 父子에 관한 史話는, 司馬遷, 史記, 卷43, 趙世家 第13 및 卷81, 廉頗藺相如列傳 第21 附記 참조. 또한, 김지수, 포청천과 청렴정직 문화, 마로니에, 2018년 초판, 146-149쪽 참조.

66) 天界覺浪(道)盛禪師全錄卷之27, 大奇·大忍·大寧·大杲較, 書札: “復李太宰書: …即今沈庄集聚, 誰非貪欲之人乎, 獨有不貪不欲之人難度, 佛嘗呵為焦芽敗種無激發之機, 故當以彼可畏可患迫之投以毒藥, 惱亂之而起其疾, 以發其機, 其餘有貪欲之人, 隨其情欲以餌之, 又誰能逃此法網哉?”

휩쓸려 잃었는바, 20년 뒤 어부가 그물질하다 건져 올렸는데, 조금도 손괴되지 않고 온전했다. 몹시 탄복한 리제천이 새로 장식해 찬贊을 청해, 해인海印화상이 쓴 글이다. “관음觀音: ‘보살어부가 正法 그물을 지니고 생사고해에 들어가 여러 중생을 건져 대각大覺 언덕에 올린다.’ 전에 화엄법문에서 곧잘 읊조린 말인데, 이제 제천거사가 물속에서 건져 올린 관음화상畫像을 보니 그게 사실임을 증험했다. 이로써 법력 감응교화가 말씀이나 형상이나 모두 진실함을 알 수 있다. 틀림없이 청정심 바다에 들어 금강처럼 굳센 신심을 지닌 자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계송에 이르길,

펼치기도 하고 말기도 하며 고금에 유통하니,

가장 소멸하기 어려운 게 대비심이네.

온전한 몸 물에 들어가 온전한 몸 나오거늘,

저 중생들 업장고해 어찌 그리 깊을꼬?”⁶⁷⁾

국법을 직접 지칭한 법망도 있다. 오역죄나 불법비방죄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는 해설이다. “오역 중죄는 (국법상 반드시 처형될 운명인데) 요행히 법망을 도피할지라도, 임종에 지옥 형상이 나타나 고통이 찢긴다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틀림없이 스스로 죄악을 진술할 것이다. 그래야 좋은 벗이 그 사실을 알고 설법으로 위안을 줄 수 있다. 만약 범죄가 발각되어 일찌감치 왕난王難을 당한다면, 또 누가 곡진히 비호해 병으로 죽도록 놔두겠는가?”⁶⁸⁾

재앙 해소 발원문 가운데 관재수로부터 평안을 기도하는 글에도 보인다.

“슬프도다! 법망이여, 경각에 달아나 살아가기 어렵겠고, 측은하다 형벌위임이여, 수유간에 죽음에 놓이기 쉽네! 구금 우환도 무겁거니와, 선물비용도 가볍지 않네. 슬프게도 하소연할 길도 없는데, 다행히 귀의할 부처님 계시네! 엎드려 바라옵건대, 소송문서에 농간 없고, 형벌판결에 참람함 없기를! 정직함을 들어 굶은 걸 물리쳐, 영원히 잘못 그르칠 우려 없기를! 적선에 길상을 내리시고, 온전히 비호해 주시길 바랍니다!”⁶⁹⁾

특히 흥미로운 일화도 전한다. 원말 명초 시문을 잘한 수인守仁(字一初)스님은 청아하고 간명하며 원대한 뜻을 담은 시로 유명해 양렴부楊廉夫가 극찬했는데, 명 태조한테 발탁되어 승록우선세僧錄右善世를 맡았다. 때마침 남방에서 비취翡翠 공물이 당도하자, 일초一初가 선뜻 詩 한 수를 지었다.

67) 海印和尚語錄, 延祐四年(1314)序, 門人從心集: “觀音: 菩薩漁師, 持正法網, 入生死海, 撿諸眾生, 達大覺岸, 昔於華嚴法門, 嘗誦其言, 今於濟川居士, 所得水中觀音畫像, 乃驗其事, 是知法力應化, 言像皆真, 必有入淨心海, 得不壞信者, 不言而喻也, 偈曰: ‘舒卷流通亘古今, 最難消是大悲心, 全身入水全身出, 奈彼眾生業海深.’”

68) 報恩論卷正上, 沈善登述, 常惺校錄, 辨正五逆謗法不得往生說: “五逆重罪, 倖逃法網, 臨終地獄相現, 苦逼求救, 必其自陳罪本, 善友方能知之, 而為說法開慰. 若所犯眾著, 早罹王難, 又誰能曲庇, 令得病終乎?”

69) 禪林疏語考證卷之2, 元賢撰, 弭災門, 橫遭官事祈安: “非殃橫罹, 豈勝下險之憂, 聖德弘仁, 爰致中孚之禱. 切念(某)燕安兀兀, 免守愚愚, 豈期棘險之奸, 妄肆株連之害? 嗟嗟法網, 殆難頃刻以逃生; 惻惻刑威, 若易須臾之置死. 桎梏之憂既重, 苞苴之費不輕, 哀控告之無門, 幸歸投之有佛. (入佛事)伏願三尺無干, 五刑不濫, 舉直錯諸枉, 永無註誤之憂, 作善降之祥, 尚冀曲全之庇!”

“염주炎州에서 진상한 취의翠衣를 보고 들으니,
하루 내내 동서로 온통 그물질했겠네!
깃과 털조차 자신한테 누가 되기 족하니,
어찌 가을숲 고요한 곳에서 날아다닐 수 있으리?”
명 태조가 시를 보고 노해 꾸짖었다.

“너는 나한테 베풀하고 싶지 않아서, 내 법망이 촘촘하다고 말하느냐?”⁷⁰⁾

한편, 중화전자불전에 ‘헌망憲網’이 모두 39회 나온다. 이는 ‘법망’과 같은 말로 대개 세속 국법을 가리킨다. 자비수참慈悲水懺에 ‘몸이 헌망憲網에 걸리다.’는 말은 자신이 왕법에 저촉되어 감옥에 들어감을 가리킨다. 마치 새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벗어나지 못함과 같아 법망에 걸린다고 비유한 것이다.⁷¹⁾

VI. ‘범망梵網’ 주석으로 본 ‘법망法網’의 함의

앞서 ‘범망=법망=(정)견망’의 전통을 소개했다. ‘梵網’(Brahma-jāla)은 고리(려)대장경/중화전자불전에 모두 182/2,513번, ‘梵網經’은 127/1,144번, ‘梵網菩薩’은 4/30번 나온다. 이제 불법계율에 비중이 큰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범망’의 해설로 불교 ‘법망’관을 살펴보자.

수隋 천태 지자대사는 경전제목에 대해, 대범천왕大梵天王的 인드라마망因陀羅網이 천겹으로 문채文綵가 서로 걸림 없이 펼쳐지듯, 무량세계가 그 그물눈처럼 낱알이 각각 다르고, 불교법문도 마찬가지로 장엄한 범신梵身처럼 서로 막힘없이 통해, 비유로 범왕梵王 그물 같다는 뜻을 취했다고 풀이한다.⁷²⁾ 이에 대해 명 4대고승인 려지蓮池(주굉株宏)대사는 이렇게 부연한다. 범망은 비유로, 인드라는 ‘天帝’ 또는 ‘천적주天赤珠’로 대범천왕의 적주라망赤珠羅網을 가리키는데, 붉은 빛 보배색이 서로 교차해 찬란히 비쳐 문채가 천겹으로 전혀 걸림이나 막힘이 없어서, 시방무량세계의 안립安立과 시방제불의 교화법문 시행과 시방제보살의 수행증득도 그와 같음을 비유한다. 범신梵身은

70) 補續高僧傳卷第25, 明 明河撰, 雜科篇, 守仁·德祥二公傳: 守仁, 字一初, 富春妙智寺闍黎也, 詩文友德祥, 字止菴, 仁和人, 二公當元末, 有志於行道, 因時危亂, 鬱鬱不自得, 遂肆力於詩, 並有聲於時. …一初詩, 清簡有遠致, 楊廉夫, 極稱賞之, 又善書, 筆法遒勁, 入我朝被徵, 為僧錄右善世, 時南粵貢翡翠, 一初題詩云: ‘見說炎州進翠衣, 網羅一日遍東西, 羽毛亦足為身累, 那得秋林靜處飛.’ 太祖見之怒曰: ‘汝不欲仕我, 謂我法網密耶?’ 止菴, 住徑山唱道, 為禪者所宗, 風化翕然, 亦以西園詩忤上, 二公皆以詩賈禍, 幾於不免.

71) 慈悲水懺法卷中隨聞錄, 智證錄: “身羅憲網: 身遭法網也. 羅, 遭也; 憲, 法也; 所謂生遭王法也. 網, 言人入囹圄, 如魚鳥之投網而不能脫也.”

72) 菩薩戒經義疏卷上, 隋 智者大師說, 灌頂記, 菩薩戒經: “此經題名梵網上卷文言, 佛觀大梵天王因陀羅網千重, 文綵不相障闕為說, 無量世界猶如網目, 一一世界各各不同, 諸佛教門亦復如是, 莊嚴梵身無所障闕, 從譬立名, 總喻一部, 所詮參差不同, 如梵王網也. 品名菩薩心地者, 亦是譬名品內所明大士要用, 如人身之有心, 能總萬事, 能生勝果, 為大士所依義言如地也.”

제불의 본원정정심체本源清淨心體인데, 펼쳐면 무량세계가 되고, 열면 무량법문이 되며, 교화인도하면 무량 수행증득이 되어, 이 범신을 장엄함이 마치 범왕이 구슬 달린 그물(珠網)로 화려한 장식을 한 것과 같다.⁷³⁾

또 도교에서 불교를 본떠, 도계道戒≡불계佛戒, 금과金科≡범망梵網, 청률靑律≡길라吉羅 등의 체계를 설정했는데,련지蓮池대사는 이에 대해서, 道戒는 세속 율령과 판이한 것 같지만 실은 같고, 佛律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하면서, 道戒는 권선징악으로 정양靜養해 신선이 되어 구천에 날아오름을 궁극으로 삼지만, 佛戒는 삼계를 초월한다고 설명한다. 왕난王難 형벌이 지옥보다 맹렬하고 현재 과보가 내생 과보보다 신속한데 대명률령 외에 따로 불계를 두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과보는 금생에 재앙이고 색신의 참혹함이지만, 래생의 윤회고통은 끝없고 지옥은 지혜·정신생명(慧命)까지 침몰해,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하다고 답변한다.⁷⁴⁾

신라 의적義寂스님은 좀 구체로 해석한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梵王이 공양한 범망은 제석천의 인드라마처럼 구멍(그물눈)은 무수하지만 그물(벼리)은 하나로 통일을 갖추었듯이, 부처님 법문도 중생근기에 따라 무한히 다채롭게 펼쳐지지만 그 이치는 통일되어 梵網으로 비유한 명칭이다. 법왕法王의 계법戒法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경중이 다양하게 달라지지만, 청정한 시라尸羅는 끝내 일도一道로 귀결하기에 梵網으로 비유한다. 또 戒는 梵行이고 법망이라서 梵網이라 부르니, 마치 老子가 ‘천망은 텅텅 빈 듯 성글지만 빠뜨림이 없다’고 말했듯, 계법戒法도 여러 중생을 섭수해 생사윤회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에 ‘큰 교망教網을 생사 강물에 펼쳐 사람과 천룡중생을 건져 열반언덕에 놓는다.’고 한 말이다.”⁷⁵⁾

73)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卷第2, 姚秦 鳩摩羅什譯, 隋 智者疏, 明 株宏發隱: “發隱, 重釋者何, 前中大部別本之意居多, 梵網心地之意未悉, 故重釋也, 梵網者, 以喻得名, 因陀羅者, 此云天帝, 又云天赤珠, 今兼用之, 言大梵天王赤珠羅網, 紅光互射, 寶色交輝, 文彩千重, 不相障闕也, 引此以明十方世界安立無量, 亦復如是, 十方諸佛教門施設無量, 亦復如是, 十方諸菩薩依教修證, 參差無量, 亦復如是, 莊嚴梵身者, 諸佛本源清淨心體名曰梵身, 列之為無量世界, 開之為無量教門, 化導之為無量修證, 所以莊嚴此身, 猶梵王之以珠網為華飾也, 心地者, 亦喻, 言人身百骸並集, 必有主宰之心, 菩薩眾德交修, 必有要妙之用, 要用者, 即本源心體戒也, 萬事因之統總, 猶地之承載一切也, 勝果因之發生, 猶地之長養一切也, 經名梵網品名心地者以此.”

74) 菩薩戒問辯, 株宏述: (二)問: 道藏既竊佛藏, 則道戒亦同佛戒矣, 受彼金科, 猶吾梵網, 犯他靑律, 即我吉羅, 雖淨明塗炭, 北斗太微, 例若小乘, 似難槩取, 餘固宜任之也. 答: 道之為戒, 與世律似遠而實同, 與佛律似近而實異, 蓋天上天下統御之勢不殊, 世出世間聖凡之分迥別, 且道戒雖亦止惡行善, 要其所歸, 惟是藉靜養而固氣潛神, 積功行而留形住世, 是以持道戒則飛昇九霄, 持佛戒乃超出三界, 梵網金科不可同日語明矣. (三)問: 大明律令, 監前代之科條, 聖祖聰明, 晰人情之隱伏, 王難烈於地獄, 見報速於來生, 奈何不遵, 又敷別戒? 答: 現報者今世之殃, 來生則苦輪無盡, 王難者色身之慘, 地獄則慧命俱沈, 況政刑止懲治凡民, 在世道尚為末務, 而梵網正成全開土, 於佛教尤屬大乘, 不可同日語又明甚矣.

75) 菩薩戒本疏卷上, 新羅 義寂述: “梵網謂梵王網, 如因陀羅網, 其義相似佛觀法門, 隨機無量其理一統, 如梵王網孔雖無量其網唯一, 故從喻事名梵網也. 此是一部通名, 若就戒本釋梵網者, 如梵王網孔多網一, 法王戒法當知亦爾, 雖復隨事輕重多條, 清淨尸羅終歸一道, 是故從喻名曰梵網, 又戒為梵行, 亦是法網, 故云梵網, 如云天網恢恢疎而不漏, 戒法亦爾, 攝諸眾生不漏生死故, 經說云, 張大教網亘生死流, 灑人天龍置涅槃岸, 蓋斯謂也.”

원효스님은 網으로 비유한 뜻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佛法을, 둘째는 경의 제목, 셋째는 부처님 설법은 지관止觀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데, 세목은 차별되지만 그물(網: 벼리)로 세목을 포섭함까지 함축한다.⁷⁶⁾ 명 4대 고승인 지옥智旭스님 주석은 너무 현히 심오한 방대한 교학이론이고, 그밖에도 비슷한 취지의 주석들이 많은데 대동소이해 생략한다.⁷⁷⁾

무엇보다도 독특하고 중요한 주석은 당唐 전오傳奧스님의 梵網經記이다. 梵王(梵覽摩)이 청정한 천당망天幢網을 지니고 부처님 법회에 참석해 공양을 올리자, 때마침 부처님이 보고 즉흥 영감으로 비유 설법한 것인데, 대범천왕 망라당網羅幢에 그물눈 하나하나가 무량세계 및 불교법문의 전개와 흡사한 점은 공통된 내용이다. 주목할 독특한 개별 분석은 범망을 보살의 삼취정계三聚淨戒에 비유한 점이다.

첫째 섭률의계攝律儀戒는 나무나 곡식에 그물(網羅)을 둘러치면 금수나 잡것이 침범하지 못하는 비유고, 둘째 섭선법계攝善法戒는 나무가 그물 덕분에 꽃과 열매가 무성히 번영하는 비유며, 셋째 섭중생계攝眾生戒는 강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건져 언덕에 올리는 비유란다.⁷⁸⁾ 청정계율의 핵심효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상당히 중요한 풀이다.

이는 바로 세속 국가법망의 목적기능에도 그대로 상응해 연역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다. 즉, 국가 법망도 보살의 삼취정계에 빗대면, 첫째 攝律儀 관점에서 범죄나 분쟁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고(일반예방), 둘째 攝善法 관점에서 국가사회와 선량한 국민이 법망 덕분에 안전한 평화질서 속에서 번영하며, 셋째 攝眾生 차원에서 죄인을 법망으로 건져 올려 교정(교화)치유로 구제(특별예방)하는 비유다.⁷⁹⁾

여기서 참고로 삼취정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경전에서는 보살수행자가 중생한테 대비심을 일으켜 대보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시이래 생사윤회하며 지은 죄악과 번뇌업장을 세척해 욕근을 정화하기 위해서, 부처님 열반 후 청정한 신심으로 참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국왕 등 네 은혜에 두루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청정한 보리심을 내어 삼세 여래가 호념하는 보살삼취계를 받아 지녀야한다고 거듭 당부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체 유정을 유익하게 하는 계와

76)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卷上, 曉公造: “今此經者, 單以喻為目, 但以網譬於佛所說法, 略有三義… 若以通門攝別門者, 而無非止觀二門, 攝無非止觀也, 雖有目差別, 而以網攝目, 目無不網義, 如來所說如是三義者, 當於此網目義故, 以喻為名故, 梵網者, 此部別名, 經此通名, 經通名如常所說.”

77) 佛說梵網經菩薩心地品下略疏卷1, 姚秦 鳩摩羅什譯, 弘贊述: 佛說梵網經直解上卷之1, 鳩摩羅什譯, 明 寂光直解 참조.

78) 梵網經記卷上(序), 唐 傳奧述: “梵謂梵王, 此云極淨離欲穢惡, 得極淨名網, 即彼天之幢網, 以彼持此至佛會中, 供養聽法時, 佛見之因取為諭. 諭有通別. 通者, 諭情器差別, 佛教被此, 亦所不同故. …別者, 諭菩薩三聚淨戒, 一諭攝律儀戒, 如網羅樹禽穢不侵; 二諭攝善法戒, 如樹得羅網, 華果繁實, 此二相資; 三諭攝眾生戒, 如張網在河, 撈魚出岸.” 宋 慧因, 梵網經菩薩戒注도 비슷한 내용!

79) 계율의 죄악 방지 및 중생 보호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수, “佛經에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 전남대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5.8, 333-364쪽 참조.

일체 선법을 닦는 계가 일체 율의를 지니는 계보다 앞서 언급해 눈길을 끈다.⁸⁰⁾ 이에 대해 이 경전이 4문에 대한 보은심이 간절하고 이타행이 급선무라 순서를 바꿔 특별히 강조한 거라고 풀이한다.⁸¹⁾

달마대사 법문에는, 해탈을 구하는 자는 탐진치 삼독을 삼취정계로 전환하고, 여섯 감각기관인 6근=6적賊을 6바라밀로 전환하기만 하면, 자연히 일체 모든 고통번뇌를 영원히 여의게 된다고 설한다. 그런데 실은 삼취정계가 바로 삼독심을 제어하여 무량 선법이 두로 마음에 모이게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고, 6바라밀도 6근을 청정히 순화해 6진塵=6경境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번뇌 강물을 건너 진리 언덕(피안)에 도달하게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란단.

경전에는 삼취정계가 일체 악을 끊고 일체 선을 닦으며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으로 표현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삼독심 통제와 어떻게 상관될까? 실은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보살로 수행할 적에 삼독을 대치對治하려고 3대 서원을 세웠다. 일체 청정계를 지켜 탐독食毒을 다스리며, 일체 악을 끊고 항상 일체 선을 닦아 진독瞋毒을 다스리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으로 항상 지혜를 닦아 치독癡毒을 다스렸다. 이렇듯 계정해 세 청정법으로 삼독을 초월해 佛道を 성취한 것이다. 모든 악이 소멸하게 끊고, 모든 선이 갖춰지게 닦아, 삼취정계로 보살 육도만행을 성취하고 자타 모두 이롭게 중생을 두루 제도하니, 그게 바로 해탈이요 성불이라는 것이다. 지계수행은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불국토가 모두 청정하다. 그래서 경전에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도 깨끗하다.’고 한다. 하여 불국토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자기 마음을 청정히 닦아야 한다.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고 삼취정계도 자연히 성취한다.⁸²⁾

또, 6도度 중 계바라밀을 삼취정계로 정의하기도 한다. 먼저 일체 계행은 모두 攝律儀 소관인데, 지계로 신구의 삼업정정의 과보를 획득해 청정법신 비로차나여래의 본체에 상응하고, 죄악을 끊기에 단덕斷德이라 부른다. 攝善法戒는 일체 善法을 포함하며

80) 大乘本生心地觀經卷第3, 唐 般若 譯, 報恩品第2之下: “以是因緣諸有情, 若能修證大菩提, 於諸眾生起大悲, 應受如來三聚戒. …發露無始生死業, 願大悲水洗塵勞. 滌除罪障淨六根, 施我菩薩三聚戒. …善男子等我滅後, 未來世中淨信者, 於二觀門常懺悔, 當受菩薩三聚戒. …普為報於四恩故. 發起清淨菩提心. 應受菩薩三聚戒. 饒益一切有情戒. 修攝一切善法戒. 修攝一切律儀戒. 如是三聚清淨戒. 三世如來所護念.”

81) 大乘本生心地觀經淺註卷第3, 清 來舟 淺註: “向之所說以此為次第, 今經以饒益有情戒在先者, 以報恩心切, 唯利他之事急.”

82) 達磨大師破相論: “求解脫者, 能轉三毒, 為三聚淨戒, 轉六賊為六波羅蜜, 自然永離一切諸苦. …三聚淨戒者, 即制三毒心也. 制三毒心, 成無量善聚. 聚者, 會也. 無量善法普會於心, 故名三聚淨戒. …菩薩摩訶薩, 於過去因中修行時, 為對三毒, 發三誓願. 斷一切惡, 故常持戒, 對於貪毒: 誓修一切善, 故常習定, 對於瞋毒: 誓度一切眾生, 故常修慧, 對於癡毒. 由持如是戒定慧等三種淨法故, 能超彼三毒, 成佛道也. 諸惡消滅, 名之為斷; 諸善具足, 名之為修. 以能斷惡修善, 則萬行成就, 自他俱利, 普濟群生, 名之為度. 故知所修戒行, 不離於心. 若自心清淨, 則一切佛土皆悉清淨. 故經云: ‘心垢則眾生垢, 心淨則眾生淨.’ 欲得淨土, 當淨其心. 隨其心淨, 則佛土淨, 三聚淨戒自然成就.”

지덕智德이라 부르는데, 비로차나여래의 원만보신에 상응한다. 攝眾生戒는 유정을 유익하게 제도 교화하는 석가모니여래의 화신에 상응하고 은덕恩德이라 부른다.⁸³⁾

한편, 무착보살은 보살이 항상 수호해야할 삼취계 중, 첫째 律儀戒는 소극적 엄금방지가 요체고, 둘째 攝善法戒와 셋째 攝眾生戒는 근면 용감한 적극 실천이 요체라고 지적한다.⁸⁴⁾

또, 천태 지자대사는 보살계 주석에서, 律儀가 수행인을 도량형 규범에 맞춰 道에 들어가게 하는 도구라고 해설하며 재밋는 비유를 든다. 즉 律이란 낮은 담·둑[렬埵]과 같아서, 예컨대 말을 곧바로 달리게 조련하는 마럴馬埵처럼, 律도 수행인을 올곧게 조련해 죄악을 짓지 못하게 막는 독·담이라는 것이다. 보살의 서원은 권선징악일 뿐이니, 만약 몸과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죄악이 그치므로, 계율로 움직임을 잘 방호해 움직이지 않음이 바로 律儀戒가 된다. 만약 몸과 입을 움직여야 한다면, 바로 선행을 일으켜서 중생을 교화하고 만선을 닦아 성불을 지향하니, 攝善계와 섭중생계에 해당한다. 律儀는 내적 수양內德을 주로 하고, 섭중생은 대외교화를 주로 하며, 섭선계는 안팎을 겸한다.⁸⁵⁾

여기서 ‘埵’은 독음이 ‘렬劣’로 뜻은 독·담(堤)인데, 길가에 나지막하게 쌓아올린 封道를 가리킨다. 두 렬埵를 나란히 쌓아 궤도처럼 만들어, 말이 그 가운데를 곧게 달리며 옆이나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련용 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律儀로 몸과 입의 비행죄악을 그치게 하고 방일을 막는다는 뜻을 비유한다.⁸⁶⁾

VII. 무량수경 본문과 주석을 통해 본 극락정토 ‘법망法網’

앞서 현전 한역 불경 본문에 ‘법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시대 오로부터 번역한 ‘불설범망록십이견경佛說梵網六十二見經’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법망’의 출현 시기를 좀 더 소급할 만한 단서를 찾을 겸, 극락정토와 천당에 보편적인 ‘보라망寶羅網’을 중심으로 관련 번역용어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조위曹魏에서 강승개康僧鎧가 한역한 무량수경에는, 비록 ‘법망’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모두 7-8회나 출현하는 ‘網’字가 여러 가지 의미로 다채롭게 쓰이며, 특히 ‘법망’을 가리키는 용례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83) 金剛頂瑜伽略述三十七尊心要, 大廣智三藏和上 참조.

84) 大乘莊嚴經論卷第8, 無著菩薩造, 唐 波羅頗蜜多羅譯, 度攝品第17之2: “菩薩有三聚戒. 一律儀戒, 二攝善法戒, 三攝眾生戒. 初戒以禁防為體, 後二戒以勤勇為體.”

85) 菩薩戒義疏卷上, 隋 智者大師說, 門人灌頂記: “次三聚戒體者. 律儀者, 法戒儀, 則規矩行人, 令入道也. 又云: 律者, 埵也. 如此馬埵, 令馬調直, 律亦如是, 調直行人, 不令作惡. 大士誓心, 不過止惡興善. 若不動身口, 即是止惡, 發戒防動, 不動即是律儀戒. 若應動身口, 即是興善. …稱攝眾生, 即是為人故動, 下化眾生. 中修萬善, 上歸佛果也. 律儀多主內德, 攝生外化, 攝善兼於內外. 故立三聚戒也.”

86) 梵網菩薩戒經疏註, 與咸 註, 梵網經菩薩心地品戒疏卷上之2: “埵(音劣), 堤也. 封道曰埵, 以二埵相軌, 馬於中行, 則不顛躍也. 律儀制止身口, 不作眾非, 即止惡義.”;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卷第1, 天台 智者說, 明 株宏 發隱: “馬埵者, 短坦圍馬曰埵. 如戒律守護身心, 令不放逸也.”

첫째, 법회에 참석한 대보살들의 수행경지 묘사에서 사망邪網·마망魔網과 불법이 명확히 대비된다. “邪網을 찢어버려 온갖 사건邪見을 소멸시키고, 홍진에 수고로움을 흘리고 욕망의 구덩이를 파괴해, 법성法城을 삼엄히 수호하고 법문을 열어 펼치며,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청백淸白을 널리 드리내며, 불법을 빛나게 융합해 올바른 교화를 크게 퍼뜨린다.… 법성法性和 중생상에 통달하여 여러 불국토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번갯빛처럼 자신을 나타내며 환법幻法에 통달해 자유자재로, 마망魔網을 찢어버려 온갖 속박을 풀어주며, 중생들이 청하지 않아도 좋은 벗이 되어, 여래의 심오한 법장法藏을 받아 지녀 불성종자가 끊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자애로운 변재로 법안法眼을 심어주어 삼악도를 봉쇄하고 착한 길을 활짝 열어 청하지도 않은 법을 아낌없이 보시한다.”⁸⁷⁾

전술했듯이, 불경에서 ‘魔網↔法網’의 대조가 특히 두드러진 점에 주목할 만하다.

둘째, 극락정토 무량수불 도량에 몹시 높고 큰 보배나무들이 아름답게 장엄된 가운데, 그 위에 진기하고 미묘한 보배그물(寶網)이 둘러쳐 있어, 미풍이 서서히 불면 미묘한 법음을 내어 설법하고, 법음을 듣는 자는 심오한 법인法忍을 얻고 불퇴전의 경지에 들어 불도를 성취하기에 이른다. 또 온갖 진기한 보배로 미묘히 장엄된 무량 보배그물(寶網)이 부처님 위에 펼쳐지고 사면에 보령寶鈴이 둘러 드리워져, 조화로운 자연 덕풍德風이 서서히 미동해 보배그물과 보수寶樹에 불면, 무량한 미묘법음을 연발해, 듣는 자는 홍진의 때와 습기를 깨끗이 씻은 듯 잊고 아라한의 멸진삼매와 같은 지극한 쾌락을 느낀다.⁸⁸⁾ 아미타(타)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극락국토에는 7겹 란순欄楯、7겹 보라망寶羅網、7겹 향수行樹가 모두 네 보배장식으로 둘러싸여 극락이라 부르는데, 미풍微風이 건듯 불면 여러 보배나무와 보라망이 마치 백천 가지 악기로 동시에 연주하는 황홀한 교향악처럼 미묘한 음향을 내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자연히 념불念佛、념법念法、념승念僧의 마음이 인다. 또 아미타(타)불이 법음을 연설하려 조화를 부려 만든 온갖 기묘한 새들이 밤낮으로 조화롭고 우아한 소리를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오근五根、오력五力、칠보리분七菩提分、팔성도八聖道 등의 법을 연설하여, 극락국토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모두念佛、念法、念僧한다.⁸⁹⁾ 그러니 이 ‘보라망’은

87) 佛說無量壽經卷上, 曹魏 康僧鎧譯: “一切世界六種震動, 總攝魔界、動魔宮殿, 眾魔懾怖莫不歸伏, 擱裂邪網, 消滅諸見, 散諸塵勞, 壞諸欲塹, 嚴護法城, 開闢法門; 洗濯垢污, 顯明清白; 光融佛法, 宣流正化, …通諸法性, 達眾生相, 明了諸國, 供養諸佛, 化現其身猶如電光, 善學無畏曉了幻法, 壞裂魔網, 解諸纏縛, 超越聲聞、緣覺之地, 得空無相、無願三昧, …為眾生類作不請之友, 荷負群生為之重任, 受持如來甚深法藏, 護佛種性常使不絕, 興大悲、愍眾生, 演慈辯、授法眼、杜三趣、開善門, 以不請之法施諸黎庶.”

88) 佛說無量壽經卷上, 康僧鎧譯: “又無量壽佛其道場樹, …無量光炎照曜無極, 珍妙寶網羅覆其上, 一切莊嚴隨應而現, 微風徐動出妙法音, 普流十方一切佛國, 其聞音者得深法忍, 住不退轉至成佛道, 不遭苦患; …以眾寶妙衣遍布其地, 一切人天踐之而行, 無量寶網彌覆佛上, 皆以金縷、真珠、百千雜寶、奇妙珍異莊嚴紋飾, 周匝四面垂以寶鈴, 光色晃曜盡極嚴麗, 自然德風徐起微動, 其風調和, 不寒、不暑; 溫涼柔軟, 不遲、不疾; 吹諸羅網及眾寶樹, 演發無量微妙法音, 流布萬種溫雅德香, 其有聞者, 塵勞垢習自然不起, 風觸其身皆得快樂, 譬如比丘得滅盡三昧.”

사실상 설법하는 ‘법망’이다.

셋째, 극락왕생하는 보살들은 항상 지혜에 수순해 정법을 선설宣說하며, 법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마음으로 오안五眼을 갖추어 불법 변재로 중생 번뇌를 제거해준다. 즉, 의혹그물(疑網)을 결단코 찢어버려, 지혜가 마음에서 솟아나 불교법문을 빠짐없이 망라해, 바다 같은 지혜와 태산 같은 삼매를 성취한다. 물론 부처님도 경법經法을 연설해 도교道教를 선포하여 중생들 온갖 의혹그물(疑網)을 끊어주고, 애욕의 뿌리를 뽑고 모든 죄악의 원천을 막아준다.⁹⁰⁾ 여기서 ‘疑網’을 찢는 불법 지혜가 대비된다.

넷째, 끝으로 부처님이 권선징악 염불왕생을 설하는 경종에서, 중생이 오악五惡을 지어 온갖 고통을 자초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天道(천망)가 펼쳐지면 자연히 죄악을 건져 올리게 되는데, 버리(綱紀)와 그물논(羅網)이 위아래서 조리정연하게 빈틈없이 상응해, 악업중생은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절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비통하게 상심하며 호소한다.⁹¹⁾ 여기서 바로 老子가 말한 자연법으로서 ‘천망’이 인과법칙으로 등장해 그물(버리와 눈)로 비유됨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법망’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바로 ‘법망’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후한 때 번역된 이역본과 삼국시대 魏에서 한역된 이역본에는, 바로 이 대목을 “왕법王法이 베풀어지면 자연히 죄악을 건져 올리게 되는데, 그물논(羅網)과 버리(綱紀)가 위아래서 조리정연하게 빈틈없이 상응하여, 악업중생은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절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표현해,⁹²⁾ ‘天道’=‘王法’의 일체성, 자연법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왕법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맥락은 역대 주석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수隋 때 려산廬山서 백련결사로 대중과 함께 왕생한 혜원스님은 의소義疏에서 이렇게 풀이한다. “무릇 세간에 천하 도리는 자연히 베풀어 세워지니 ‘천도시장天道施張’이라 하고, 죄악을 지으면 반드시 드러나니 ‘자연규거自然糾舉’하며, 자신이 몸소 법망을 감당하니 ‘강

89) 佛說阿彌陀經, 鳩摩羅什譯: “極樂國土, 七重欄楯、七重羅網、七重行樹, 皆是四寶周匝圍繞, 是故彼國名曰極樂. …彼國常有種種奇妙雜色之鳥——白鵠、孔雀、鸚鵡、舍利、迦陵頻伽、共命之鳥. 是諸眾鳥, 晝夜六時出和雅音, 其音演暢五根、五力、七菩提分、八聖道分如是等法. 其土眾生聞是音已, 皆悉念佛、念法、念僧. …彼佛國土, 微風吹動, 諸寶行樹及寶羅網出微妙音, 譬如百千種樂同時俱作, 聞是音者皆自然生念佛、念法、念僧之心.”

90) 佛說無量壽經卷下, 康僧鎧譯: “生彼佛國諸菩薩等, 所可講說常宣正法, 隨順智慧無違無失, …修諸善本, 志崇佛道, 知一切法皆悉寂滅, 生身煩惱二餘俱盡, 聞甚深法心不疑懼, 常能修行其大悲者, 深遠微妙靡不覆載, 究竟一乘至于彼岸, 決斷疑網, 慧由心出, 於佛教法該羅無外, 智慧如大海、三昧如山王, 慧光明淨超踰日月, 清白之法具足圓滿, …佛告彌勒…今我於此世作佛, 演說經法, 宣布道教, 斷諸疑網; 拔愛欲之本, 杜眾惡之源, 遊步三界無所拘闕, 典攬智慧眾道之要, 執持綱維昭然分明, 開示五趣度未度者, 決正生死泥洹之道.”

91) 佛說無量壽經卷下, 康僧鎧譯: “是世五惡勤苦若此, 五痛、五燒展轉相生, 但作眾惡不修善本, 皆悉自然入諸惡趣, …從小微起遂成大惡, 皆由貪著財色、不能施慧, 癡欲所迫、隨心思想, 煩惱結縛無有解已, …天道施張自然糾舉, 綱紀羅網上下相應, 熒熒忪忪當入其中, 古今有是, 痛哉可傷!”

92) 佛說無量清淨平等覺經卷第4, 後漢 支婁迦讖譯: “王法施張, 自然糾舉, 上下相應; 羅網綱紀, 熒熒忪忪, 當入其中, 古今有是, 痛哉, 可傷!”; 佛說阿彌陀經卷下, 吳月支國居士支謙譯: “王法施張, 自然糾舉上下相應, 羅網綱紀, 熒熒忪忪, 當入其中, 古今有是, 痛哉可傷, 都無義理, 不知正道.”

기라망綱紀羅網'이라 하고, 귀천상하를 막론하고 법에 복종하니 '상하상응上下相應'이며, 죄악자가 돌아가는 곳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으니 '경종당입기중榮松當入其中'이라 한다."⁹³⁾ 신라 경흥璟興스님도 무량수경 연의술문찬連義述文贊에서 대체로 이 해석을 따른다.⁹⁴⁾

따라서 후한 및 삼국시대 위魏·오吳에서 한역된 무량수경에 이미 '법망'을 명확히 지칭하는 용어개념이 등장했고, 불경이 당시 최고 지식인 계층에 들불처럼 급속히 보급된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이미 후한 때 '법망'이란 단어가 불교 신자 및 식자층에 등장해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중국 고전 및 정사正史에서 후한 때 비로소 처음 나타나는 '法網'이란 용어개념은 바로 불교 경전에서 비롯했다고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⁹⁵⁾ 왜냐하면, 한서 이전에는 '法網'이란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한서 注에 인용된 후한 대 복건服虔 글에 딱 1번 나오며 후한서에 2번 나오는데, '법망'이란 단어는 삼국 때 한역 경전에 등장하지만, 후한 때 한역 불전에 이미 '법'·'망'이란 밀접한 비유가 명백히 표현되었기 때문이다.⁹⁶⁾

게다가 한서 주에 인용된 복건服虔 글에 '법망'이 반드시 직접인용이란 보장이 없거니와, 후한서에 나오는 '법망' 2회도 후한 원문을 직접 그대로 수록한 것인지, 아니면 후한서를 편찬한 남조南朝 송宋에 범엽范曄이 당시 언어로 기술한 건지는 불분명하다. 또 주요 사서에 나오는 '법망' 관련 용어를 대략 검색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듯이, 주로 유생들이 기록한 사서에는 '법망'보다는 '금망'이나 '형망'·'천망'이 대개 많이 나오는데, 유독 송서宋書에만 '법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조 송 때 각별히 '법망'이 즐겨 애용된 느낌이다.

	網	文罔	禁網	法網	科網	刑網	天網	罪網	憲網	漏網	國網
史記	14	1	0	0	0	0	0	0	0	0	0
漢書		0	4	0	0	0	1	0	0	0	0
後漢書	46	0	4	2	1	0	6	0	0	0	0
三國志	23	0	0	0	0	2	3	1	0	0	1
晉書	52	0	1	1	1	1	7	0			
宋書	46	0	0	4	0	2	2	0	1	2	3
南齊書	17	0	0	0	1	2	1	0	0	1	0
梁書	21	0	1	0	0	0	2	0	0	0	0
陳書	17	0	1	0	0	0	7	0	0	1	0
魏書	45	0	4	1	0	5	6	0	3	0	0
隋書	52	0	5	2	0	3	7	0	1	1	0
唐書	63	0	0	2	0	8	3	0	1	1	0

93) 無量壽經義疏下卷, 慧遠撰: “凡在世間, 天下道理, 自然施立, 是故名爲天道施張, 造惡必彰, 名自糺舉, 身當法網, 是故名爲綱紀羅網, 貴賤上下, 莫不從法, 是故名爲上下相應, 罪者歸之, 無人伴匹, 故云榮松當入其中.”

94) 無量壽經連義述文贊卷下 新羅 璟興撰: “業果之理, 更無作者, 故云天道施張; 造惡必彰, 故自糺舉; 身當法網, 故云綱紀羅網; 貴賤勿不從法, 故上下相應; 罪者歸之, 無人伴送, 故云榮, 榮松者忽也.”

95) 사실 동아시아 전통 및 현대 법률용어는 직접 불교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이 확인된다. 김지수, “동아시아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 영향”, 외법논집 제42권제2호, 2018.5. 89-124쪽 참조.

96) 김지수,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경북대 법학논고, 제71집, 2020.10. 405-414쪽 참조.

VIII. 법망法網의 별칭 대명사: 교망敎網과 승망僧網

‘법망’은 부처님 가르침 체계란 뜻으로 ‘교망敎網’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앞서 僧網=敎網=法網의 등식관계로 호용됨을 살폈는데, 여기서 몇몇 중요한 ‘敎網’과 ‘僧網’ 사례를 소개한다.

부처님 당시 5백 어부가 승혜하勝慧河에서 큰 어망 두 개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한번은 바다 속 마갈대어摩竭大魚가 조류를 타고 勝慧河에 떠밀려 그물에 걸려 물에 끌려 나왔는데, 그 모습은 하도 기이하게 18두와 36안眼을 지녔다. 세존은 액난을 당한 이 摩竭魚가 가섭불 때 선근을 심어 제도할 인연이 된 줄 알고, 일부러 현장을 찾아가 대교망大敎網을 베풀어, 5백 어부한테 다른 물고기를 방생하도록 교화했다. 그리고 친히 마갈어와 법담을 나누어 전생 잘못과 현생 인과를 깨닫게 한 뒤, 목숨을 거두고 사천왕천에 생겨나게 제도했다.⁹⁷⁾

한편,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설법의 방편에 관하여 멋진 비유가 나온다. 모든 부처님은 지극히 청정해 모든 업장을 여인 까닭에, 법성의 몸과 적멸의 입으로 대자비심에서 敎網을 흘려 내보내 중생을 인접引接하는데, 마치 큰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려 침을 흘려 온갖 생물을 먹이로 흡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⁹⁸⁾ 또 화엄경에는 선재동자가 미륵보살한테 경례하고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 물으면서, 생사광야에 바른 길을 잃은 자한테 정도를 보여주고, 번뇌질환은 훌륭한 의사良醫로서 치료하며, 생사고해에 허우적거리는 자를 제도하기 위해 大敎網을 펼쳐 건져 올리는 도사導師로 찬탄하는 대목이 나온다.⁹⁹⁾

부처님은 삼계를 초월한 대법왕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간에 출현하신바, 감로지혜법문에 들어 방편력으로 3종 법요法要로 중생을 교화함에, 敎網을 생사 바다에 던져 그들을 인천人天의 안락한 곳에 건져 올린다.¹⁰⁰⁾ “일체 중생이 아견我見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무명無明의 뜻을 펼쳐 번뇌의 바람에 내맡긴 채 생사고해를 위험천만하게 표류하는데, 부처님은 대자비심에서 大敎網을 펼쳐 천상인간 중생을 건져 열반언덕에

97)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卷第9, 義淨譯, 妄說自得上人法學處第4: “時有五百漁人, 於勝慧河邊結侶而住. … 勝慧河側五百漁人張大足網, 捕得一魚牽在岸上, 其形奇大有十八頭、三十六眼. … 爾時, 世尊作如是念: ‘此摩竭魚, 今遭苦厄, 於先佛所, 已植善根, 我因魚故, 施大敎網, 化度有情, 宜往勝慧河側.’”

98) 大乘莊嚴經論卷第6, 無著菩薩造, 唐 波羅頗蜜多羅譯, 弘法品第13: “法身寂滅口 悲流如蟒吸. 諸佛以法性為身, 寂滅為口, 極廣清淨, 離二障故. 以大慈悲, 流出敎網, 引接眾生. 譬如大蟒, 張口吐涎, 吸引諸物. 一切諸佛, 身口悲同, 引接亦爾. 大悲無盡, 由畢竟故.”

99) 大方廣佛華嚴經卷第58, 佛馱跋陀羅譯, 入法界品第34之15: “迷正路者, 示以正道; 煩惱患者, 治以良醫; 諸眾生尊為天中天, 為無上聖. 勝出二乘生死海者, 為作導師, 而度脫之, 張大敎網, 亘生死海.”

100) 大乘本生心地觀經卷第7, 般若譯, 波羅蜜多品第8: “超過三界大法王, 出現世間化群品, 恒河沙等諸菩薩, 入佛甘露智慧門. … 大聖法王方便力, 三種法要化眾生, 敎網垂於生死海, 置彼人天安樂處.”

올려놓는다.”¹⁰¹⁾

唐 때 화엄경론의 대가 리통현李通玄 장자長者는 특히 ‘教網’을 즐겨 썼다.

“이 세계가 사천하 미진수微塵數의 향마니수미산망중香摩尼須彌山網中에 거주한다 함은, 삼공묘혜三空妙慧가 여래의 4무애변재의 향중香中에 거주해, 수미산 미진수의 教網을 갖추었다. …마니보망摩尼寶網이 그 위를 덮음은, 무공無功의 지혜로 항상 教網을 베풀기 때문이다.” “미묘한 보장寶藏은 자비로 양육한 과보로 생기고, 마니 잎은 무구無垢를 행한 과보로 생기며, 광명보왕光明寶王의 누대는 근본지根本智가 드러나 관조사용이 자유자재한 과보로 생기고, 온갖 색향色香의 보배 수염은 계정혜해탈해탈지견향의 과보로 생기며, 무수한 寶網이 그 위를 덮음은 教網을 능히 베풀 과보로 생기고, 위에 루관樓觀이 있음은 차별지差別智의 과보로 생기며, 시방법계장藏을 두루 포용함은 대지혜로 教網을 두루 펼쳐 뒤덮은 과보로 생기고, 기묘한 보배장식은 미묘한 수행과보로 장엄함이며, 금강 대지는 법신 과보로 생긴다.”¹⁰²⁾

“금선망의좌金線網衣座란, 선線은 꿰뚫는다는 뜻이고, 망網은 教網이며, 의衣는 덮어 감싼다는 뜻이니, 선善으로 教網을 잘 꿰뚫어(통달하여) 중생을 덮어 감싸 보호한 과보로 이 자리에 앉는다.” “법계국토에 두루 나타나 마니보망摩尼寶網으로 그 위를 뒤덮음은, 근본지根本智를 잘 통달하여 시방국토에 가는 곳마다 일체 중생을 교화함이니, 모든 教網은 죄다 근본지로부터 차별지差別智를 드러내 무한한 教網을 베풀어 중생을 건져 올린 공덕 과보로 이루어진다.”¹⁰³⁾

이밖에 수행집단인 승가대중이 지켜야할 계율체계란 뜻으로 쓰인 ‘승망僧網’도 대체로 ‘계망戒網’과 같은데, 앞서 상세히 살폈듯이 사분률四分律에 승망대강僧網大綱편이 나온다.

“僧網大綱이란 세간 그물에 버리가 그물눈을 가지런히 정돈함에 빚댄 이유다. 이편은 승가 법망에 기강이다. 승가대중을 주지住持하는 대요를 버리(綱)라 하고, 세세한 행위 의례儀軌를 그물눈(網)이라 하니, 승중 망목綱目에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문說文에 그물 지탱하는 큰 밧줄을 버리(綱)라 한다. 승법僧法이 어그러지면 문란해져 두서를 잃 나니. 이 한 편을 치켜 올리면 정돈되지 않을 법이 없다. 더러 중주삼강眾主三綱도 승망

101) 般若燈論釋卷第11, 偈本龍樹菩薩, 釋論分別明菩薩, 唐 波羅頗蜜多羅譯, 觀法品第18: “一切眾生, 豎我見幢, 張無明帆, 處煩惱風, 入生死海. 諸佛大悲, 張大教網, 撈渡天人, 置涅槃岸.”; 法華文句記卷1(中), 唐 湛然述: 三、「數八教」下, 結責者, 華嚴云「張佛教網亘法界海, 渡天人魚, 置涅槃岸。」

102) 新華嚴經論卷第39, 李通玄撰: “此世界住四天下微塵數香摩尼須彌山網中者, 明此三空妙慧, 住如來無礙四辯之香中故, 具須彌山微塵數教網也. …摩尼寶網覆上者, 表無功之智恒施教網.”; 新華嚴經論卷第40: “妙寶藏者, 慈悲含育報生也. 摩尼為葉者, 行無垢報生也. 光明寶王以為其臺者, 以根本智現, 照用自在所報生也. 眾寶色香以為其鬚者, 戒定慧解脫解脫知見香所報生也. 無數寶網彌覆其上者, 以能施教網報生也. 上有樓觀者, 差別智報生也. 普納十方法界藏者, 以大智遍周教網普覆所報生也. 奇妙寶飾者, 妙行報嚴故. 金剛為地者, 法身報生也.”

103) 略釋新華嚴經修行次第決疑論卷2之下, 李通玄撰: “金線網衣座者: 線者, 貫穿義; 網者, 教網也; 衣者, 覆蓋義. 以善能貫穿教網, 覆護眾生, 報居此座.”; 卷4之上, 十地位: “以普現法界國土摩尼寶網, 羅覆其上者, 以明會根本智, 一切隨方國剎, 教化一切眾生. 所有教網, 皆從根本智, 現差別智. 設無邊教網渡眾生, 而成報果故.”

僧網을 취하는데, 망綱은 강綱으로 말미암으니, 綱은 곧 중승眾僧이라고 해석한다. 주지(眾主)가 승가대중(衆僧)을 유지함은, 버리(綱)가 그물(網)을 유지함과 같기 때문이다.”¹⁰⁴⁾

IX. 기타 주요한 그물 비유들

앞서 불경에 나오는 다양한 그물의 비유 개황을 대강 소개했다. 그냥 ‘그물(網)’이라 쓸 때는 어망魚網 또는 어망漁網을 가리킬 것이다. 은유로 쓰여 장엄을 찬탄하는 ‘그물’에는 찬란히 밝은 빛(불광)을 가리키는 光網、光明網、明網、염망焰網 등이 있고, 제석천의 인드라마(因陀羅網), 천당 극락에 온갖 화려한 보배장식그물인 라망羅網、보라망寶羅網、寶網、주망珠網 등이 빈번히 나온다. 반면 부정적 의미에서 죄악에 걸려든 속박을 상징하는 그물로 죄망罪網、악망惡網、업망業網、의망疑網、치망癡網、무명망無明網、욕망欲網、애망愛網、생(사)망生(死)網、마망魔網、사(견)망邪(見)網 등이 보인다.

그중 특이한 그물 비유 개념을 몇 가지만 대표로 소개한다. 우선, 약사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약사여래가 보살도를 수행할 때 12서원을 세웠는데, 그중 자신이 득도 성불할 때에 몸이 유리처럼 안팎으로 청정무구하고 광명이 광대무변하며, 그 ‘불꽃그물(焰網)’이 해와 달보다 장엄하게 중생세계를 흰히 비춰주는 제2서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악마그물(魔網)’에서 벗어나(解脫) 정견正見에 안주하고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인도한다는 제9서원이 있다. 여기서 염망焰網↔마망魔網의 상이相異한 대비구조가 눈에 띈다. 악마(마귀)그물은 곧 죄악의 함정을 뜻하니 세속 법망에 가깝다. 반면, 불꽃그물은 광명방사를 뜻하므로, 종교 진리나 도덕·정법의 그물 비유와 상통한다. 앞서 무량수경 등에서도 나왔듯이, 한 경전에서 동일한 내용 단락에 완전 상반의미를 똑같은 ‘그물’ 비유로 형상화한 부처님 법문이 경이롭기만 하다. 비유 수법상 추상적 악마그물은 올라가 개념으로 비교적 쉽게 연상되지만, 구체적 불꽃그물이 오히려 난해한 비유로 느껴진다. 현대어에 불꽃그물과 비슷한 의미로 ‘화망火網’이 있는데, 이는 탄도彈道가 종횡으로 교차해 밀집된 화력이 형성하는 무늬를 뜻한다고 한다. 밤에 불꽃놀이 때 빛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다. 참고로, 제석천에 인드라마와 천당극락에 온갖 화려한 보배장식그물인 보라망寶羅網 등은 현대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상하면 좋을 것이다.

후한·삼국시대 번역된 경전에 ‘의망疑網’ ‘마(라)망’ 등이 압도로 많이 나온다. 별역잡아함경別譯雜阿含經에는 파사닉왕의 사유 질문에 부처님이 마망魔網을 어망에 비유한 법문이 나온다. 세계에 많은 대중은 봉록을 얻어 교만방자하게 탐욕으로 중생을 괴

104) 四分律鈔批卷第4末, 唐 大覺撰, 僧網大綱篇第7: “言僧網大綱者, 借喻世網之綱, 能正其綱目。今此一篇, 是僧家法網之綱紀也。住持之大要曰綱, 細行之儀軌是網, 亦得云僧眾綱目之綱領, 故曰也。說文云: 持網大繩曰綱也。僧法若乖, 紊亂失緒, 舉此一篇, 無法不整。故上序云: 紉既絕之玄綱, 即斯義也。濟云: 今言眾主三綱, 亦取僧網, 綱由綱也, 綱即眾僧也。以眾主能持於僧故。如綱能持其網也。”

롭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은 뒤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 비유하자면, 어부가 물고기 잡는 법에 능숙하여 교묘한 선방편으로 세밀한 그물을 넷물에 가로질러 치면, 수족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들어 죄다 어부 손에 넘어가고, 어부 뜻에 따라 처분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세간에 교만방자하고 탐욕스런 어리석은 중생들도 마망 魔網에 들어가 붙잡혀, 모든 거동이 죄다 마군 짓이 된다고 비유한다.¹⁰⁵⁾

불교 전래 초기인 후한 때 번역된 반주삼매경 般舟三昧經에도, 악마의 손아귀를 그물에 비유한 ‘마라망 魔羅網’이 여러 번 나와 눈길을 끈다. “항상 경전을 즐기고 많이 배우며, 음욕, 진에, 우치를 버리고 魔羅網을 벗어나라! …탐음심 貪婬心을 따르지 말고 진에 瞋恚와 우치 愚癡를 버려, 魔羅網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나니, 삼매를 구하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¹⁰⁶⁾ “음일한 뜻을 제어하고 집착을 버려, 진에심도 없고 아첨도 저버려, 끝내 다시는 마라망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이 삼매를 지니면 이러하느니라!”¹⁰⁷⁾

삼국 오로부터 번역된 경전에는, 싯달타 태자가 밤중에 궁성을 넘어 출가하며 마부한테 회포와 결의를 다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생로병사우비고뇌로 가득한 세간 삶을 죄수가 감옥에 갇힌 것에 빗대며, 누가 감옥을 좋아해 벗어나지 않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사냥꾼 그물에 걸린 토끼가 다행히 벗어났는데, 어찌 다시 그 그물 속에 되돌아가려고 하겠느냐고도 비유한다. 별주부전(수궁가)에서 자라 뽕에 넘어가 죽을 뻔했던 토끼처럼, 일단 그물을 벗어나면 끝내 되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나듯이, 자신도 재가 시에 오래 품어오고 무수겁이래로 지녀온 출가의지를 결코 되돌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서원이었다.¹⁰⁸⁾

이에 상응하여 지장경 地藏經에는, 아직 해탈하지 못한 중생이 선행과 죄악을 지어 업장과보를 맺고, 무수한 세월동안 휴식하지 못하며 환경 따라 욕도 윤회하는 모습을, 물고기가 물살 따라 헤엄치다가 그물에 갇히는 꼴로 비유한다. 장구한 생사윤회 강물 속에서 잠시 벗어나다가 다시 타락하는 중생 습성은, 마치 물고기가 한번 걸린 그물을 요

105) 別譯雜阿含經卷第3, 失譯人名今附秦錄, 初誦第3: “大王! 實爾, 實爾, 世界之中, 多有眾人, 得封祿已, 憍慢自恣, 貪嗜於欲, 苦楚眾生, 如是愚人, 長夜受苦, 得大損減, 命終之後, 必入地獄. 大王! 譬如魚師及其弟子, 於捕魚法善巧方便, 以細密網截流而拖, 魚鼈龜鼃, 水性之屬, 為網所得, 此水性等, 入網之者, 悉皆集在魚師之手, 牽挽旋轉, 任魚師意. 世間之中, 多有眾人, 得勝封祿, 憍慢自恣, 貪嗜五欲, 加惱眾生, 亦復如是, 所以者何? 如斯愚人, 即入魔網, 為網所獲, 周迴舉動, 住魔所為. 爾時, 世尊即說偈言: 縱逸著事業, 荒迷嗜五欲, 不知有惡果, 如魚入密網, 此業已成就, 極受大苦惱.”

106) 般舟三昧經卷中, 後漢 支婁迦讖譯, 四輩品第6: “常當樂於經、當求多學, 當棄婬恚癡, 出魔羅網去, …學是三昧時當敬善師視如佛, 當承是經中教, 守是三昧. …無得聽貪婬心, 棄瞋恚及愚癡, 莫得墮魔羅網, 求三昧當如是.”

107) 般舟三昧經卷中, 後漢 支婁迦讖譯, 授決品第7: “制婬妬意捨所著, 無瞋恚心棄諛諂, 終不復墮魔羅網, 持是三昧得如是.”

108) 惟日雜難經一卷, 吳 支謙譯: “菩薩始出家行百里, …太子報言…世間但有老、病、死、憂苦, 當願何等? 如囚在獄中, 誰有樂者? 當尚未離是, 而復更願當何時脫? 譬如獵客網中窺得脫, 寧復念還入網中, 不念得脫? 如窺脫網, 終不還歸, 我在家時念是日久, 亦從無數劫以來有是意, 非獨今日所致也.”

행히 빠져나갔다가 이내 다시 그물에 붙잡히는 악순환 같다는 비유가 펍 인상 깊다.¹⁰⁹⁾

한편, 불교 전래 초기 후한 때 번역된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에 ‘철망鐵網’도 주목할 만하다. 염라왕이 지극히 중대한 인과응보 법률에 따라 밤낮으로 항상 설하는 살생과 보로 10대지옥고가 나온다. 첫째 도산염치刀山焰熾지옥, 둘째 검림劍林地獄, 셋째 확탕鑊湯지옥, 넷째 철상鐵床지옥, 다섯째 철산鐵山地獄, 여섯째 철망鐵網지옥, 일곱째 적련화赤蓮花지옥, 여덟째 오사오활五死五活지옥, 아홉째 독사림毒蛇林地獄, 열째 철계가쇄鐵械枷鎖지옥이다.

이중 넷째 철상지옥에는 넓은 철상 위에 사방에서 쇠날이 발사되어 심장에 꽂히고, 대철망거大鐵網車가 톱처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갈라 내려온다. 여섯째 철망지옥은 큰 철산에 끓는 쇠물이 가득하며 위에 철망이 덮는데, 쇠그물눈마다 날카로운 쇠부리에서 흉칙한 벌레들이 무수히 나와 정수리로 들어와 골수를 관통해 발바닥으로 뚫고 나온다. 열째 철계가쇄지옥에는 12유순 철산이 차꼬로 손발을 묶고, 60유순 철주화망鐵柱火網이 항쇄로 목 조르며, 80유순 철구鐵狗가 불을 내뿜고 허공에서 쇠화살이 발사되어 심장에 꽂히며, 차꼬 항쇄에서 저절로 동환銅丸이 생겨 눈으로 들어가 온몸을 관통해 발바닥으로 나온다. 사견邪見의 죄악 과보에도 ‘철망’이 나온다.¹¹⁰⁾

X. 맺음말

지금까지 불교대장경에 나오는 ‘법망’과 그에 관련된 다양한 비유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법망’ 비유개념의 역사적 연원 및 철학정신을 살펴보았다. 고대 동아시아 고전문헌에서 그물로 법을 지칭한 은유가 다수 등장한 다음, -老子的 ‘천망天網’을 제외하면 특별히 합성단어로 쓰인 사례가 거의 없다가-, 한서에 비로소 ‘금망禁罔’ 개념이 출현하고 후한서에 이르러 비로소 ‘법망法網’과 ‘형망刑網’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확정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 개연성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 법문화에서 ‘법망’의 비유개념(용어)은 불교 전래 이후 한역 불교경전의 보급전파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태동·형성·확산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한역 불전을 ‘법망’의

109) 地藏菩薩本願經，實叉難陀譯，閻浮眾生業感品第4：“如魚遊網，將是長流，脫入暫出，又復遭網。”

110) 受十善戒經，後漢失譯人名：“當知殺生受大惡報，必定當墮極劇苦處阿鼻地獄，繫屬法律閻羅王所，何等名為極重法律？彼閻羅王晝夜六時說殺生報有十惡業：一者，殺生之業恒生刀山焰熾地獄…，二者，殺生之業必定當生劍林地獄…，三者，殺生之業生鑊湯地獄…，四者，殺生之業生鐵床地獄，有一鐵床，縱廣正等五十由旬，四方鐵鉞俱來射心，大鐵網車轆其頂上，劈足而出。…五者，殺生之業生鐵山地獄…，六者，殺生之業生鐵網地獄，有大鐵山，高百千由旬，滿中鐵湯，鐵網在上，一一網間鐵嘴諸蟲無量無邊從頂上入，貫骨徹髓，劈足而出。…七者，殺生之業生赤蓮花地獄…，八者，殺生之業生五死五活地獄之中…，九者，殺生之業生毒蛇林地獄之中…，十者，殺生之業生鐵械枷鎖地獄之中，十二由旬鐵山為械，六十由旬鐵柱火網為鎖，八十由旬鐵狗口中吐火為柵，虛空鐵箭自落射心，柵械枷鎖化生銅丸，從眼而入，遍體支節，從足而出。…”

직접 연원으로 판단하는바, 적어도 불교 영향을 크게 받은 사실로 미루어 막강한 간접 연원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수확이 있다. ‘법망’이 지니는 통상적 응징·격리 개념에, 불교 보살의 삼취정계三聚淨戒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 보호유지 및 구출·제도濟度 개념을 원용해 확장 융합하는 것이다. 이로써 ‘법망’ 비유의 함의가 더욱 풍성하게 확대심화한 점이다. 그밖에도 고승대덕의 기발한 창안 해설·강의로 전통 법문화의 철학정신을 더욱 생기발랄하게 해석할 여지를 확보한 점도 크나큰 결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보 연구해석이 앞으로 관심 있는 유능한 후학들의 확대심화 연구에 유의미한 발판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高麗大藏經 CD-Rom, 高麗大藏經研究所, 2004년판.

中華電子佛典(CBETA) CD-Rom, 中華電子佛典協會, 2014년판.

한역경전: 佛說梵網六十二見經, 吳 支謙譯; 大方廣佛華嚴經, 東晉 佛跋陀羅譯; 度世品經, 西晉 竺法護譯; 五千五百佛名神呪除障滅罪經, 隋 闍那崛譯; 大方廣佛華嚴經, 唐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 唐 般若譯; 百千頌大集經地藏菩薩請問法身讚, 唐 不空譯; 大乘頂王經, 梁 月婆首那譯; 大乘寶雲經, 梁 曼陀羅仙共僧伽婆羅譯; 正法念處經, 元魏 瞿曇般若流支譯;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晉代失三藏名今附東晉錄; 佛說無量壽經, 曹魏 康僧鎰譯; 佛說阿彌陀經, 姚秦 鳩摩羅什譯; 佛說無量清淨平等覺經, 後漢 支婁迦讖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義淨譯; 別譯雜阿含經, 失譯人名今附秦錄; 般舟三昧經, 後漢 支婁迦讖譯; 惟日雜難經, 吳 支謙譯; 地藏菩薩本願經, 實叉難陀譯; 受十善戒經, 後漢失譯人名; 大乘本生心地觀經, 唐 般若譯; 梵網經 長部經典, 通妙譯.

한역경론: 大乘莊嚴經論, 無著菩薩造, 唐 波羅頗蜜多羅譯; 大乘本生心地觀經, 般若譯; 般若燈論釋, 偈本龍樹菩薩, 釋論分別明菩薩, 唐 藏波羅頗蜜多羅譯; 達磨大師破相論; 金剛頂瑜伽略述三十七尊心要, 大廣智三藏和上.

경전주석: 淨名經集解關中疏, 道液集; 維摩羅詰經文疏, 隋 智顗撰; 維摩經略疏, 湛然略; 大般涅槃經疏, 隋 章安頂撰, 唐 湛然再治;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唐 道宣撰; 搜玄錄解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錄, 唐 志鴻撰; 四分律鈔講前加行方便, 唐 大覺撰; 四分律鈔批, 唐 大覺撰; 四分律鈔簡正記, 後唐 景霄撰; 四分律鈔簡正記; 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濟緣記, 宋 元照述; 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正源記, 允堪述; 無量壽經義疏, 慧遠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新羅 璟興撰; 略釋新華嚴經修行次第決疑論, 唐 李通玄撰; 菩薩戒經義疏, 隋 智者說, 門人灌頂記;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姚秦 鳩摩羅什譯, 隋 智者疏, 明 祿宏發隱; 菩薩戒問辯, 祿宏述; 菩薩戒本疏, 新羅 義寂述; 梵網經菩薩戒本私記, 曉公造; 佛說梵網經菩薩心地品下略疏, 姚秦 鳩摩羅什譯, 明 弘贊述; 佛說梵網經直解, 鳩摩羅什譯, 明 寂光直解; 梵網經記, 唐 傳奧述; 會刻仁王護國般若經疏; 梵網菩薩戒經疏註, 與咸(入疏箋經加註釋疏);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天台智者說, 明 祿宏 發隱; 大乘本生心地觀經淺註, 清 來舟 淺註.

고승법문어록: 摩訶止觀, 隋 智者說, 門人灌頂記; 止觀義例纂要, 宋 從義撰; 四明尊者教行錄, 宋 宗曉編; 佛祖統紀, 宋 志磐撰;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慧立本 釋彥棕箋; 續高僧傳, 唐 道宣撰; 廣弘明集, 唐 道宣撰; 佛法金湯編, 明 心泰編, 真清閱; 佛祖歷代通載, 念常集; 隆興佛教編年通論, 祖琇撰; 新華嚴經論, 唐 李通玄撰; 高僧傳, 梁 慧皎撰; 北山錄, 神清撰, 西蜀草玄亭沙門慧寶注; 出三藏記集傳, 梁 僧祐撰; 新脩科分六學僧傳, 元 曇噩述; 景德傳燈錄, 宋 道原 撰; 禪門諸祖師偈頌, 宋 如祐錄; 續傳燈錄, 편자 미상; 集古今佛道論衡, 唐西明寺釋氏; 大唐內典錄, 道宣撰; 大乘入道次第開決, 曇曠撰; 天竺別集, 宋 遵式述; 高峰龍泉院因師集賢語錄, 元 如瑛編; 五宗原, 明 法藏

著; 永覺和尚廣錄, 明 道需重編; 天界覺浪(道)盛禪師全錄, 門人大奇大忍大寧大杲較; 海印和尚語錄, 門人從心集; 報恩論, 清 沈善登述, 張常惺校錄; 禪林疏語考證, 明 元賢撰; 補續高僧傳, 明 明河撰; 慈悲水懺法卷中隨聞錄, 清 智證錄.

老子, 莊子.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宋書, 南齊書, 梁書, 陳書, 魏書, 隋書, 唐書.

탄허, 탄허록吞虛錄, 휴, 2012년 초판.

김지수, 포청천과 청렴정직 문화, 마로니에, 2018년 초판.

서길수, 고구리·고리사 연구1-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高句麗, 여유당, 2019년.

김지수, “佛敎 경전에서 정신(마음) 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의 의미”, 전북대 법학연구 제39집, 2012.9. 447-496쪽.

김지수, “佛經에서 罪惡을 예방하는 戒防으로서 法의 비유”, 전남대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5.8, 333-364쪽.

김지수, “동아시아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 영향-十惡·陵遲處死·契約·相續·調停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2권제2호, 2018.5. 89-124쪽.

김지수,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 정신-”,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71집, 2020.10. 387-440쪽.

서길수, “‘高句麗’와 ‘高麗’의 소리값(音價)에 관한 연구”, 『高句麗研究』 27집, 2007, 27-105쪽.

[Abstract]

**The Metaphors of Net of Dharma(Dharma-jāla) in Buddhist Tripitaka
Concerning Historical Origin & Philosophical Wisdom of Net of Law in
East Asian Legal Culture**

Kim, Jisu*

The metaphors of the net of dharma(dharma-jāla) has a tradition of thousands of years in Buddhist Tripitaka. This article studies it esp. concerning historical origin & philosophical wisdoms of net of law in east asian legal culture.

This study adopts an inductive method of corpus analysis with historical research by referring Buddhist Tripitaka records. So readers may be bored by the monotonous development of work, but would be recommended for reminding that tastelessness implies all tastes.

Firstly, this work represents a summary of metaphors of the net of dharma in Buddhist Tripitaka by a chart. Secondly, it researches the net of dharma in Chinese translations of Buddhist Sutra, Chinese commentaries, and the Buddhist priesthoods & analects of great monks. Thirdly, it investigates implications of net of dharma through Chinese commentaries on 'Brahma-jāla'(梵網: pure net). Fourthly, it looks into the metaphors of the net of dharma in Amitābhavyūha-sūtra & its Chinese commentaries. Fifthly, it traces some byname of the net of dharma, namely the net of Buddha's teachings and the net of monks and so forth.

In conclusion, this study may be rewarded with good fruits that the metaphor of the secular net of law would be able to extend and deepen its implications to saving mankind from the sea of life and death. So the spiritual wisdoms of the net of law in east asian may be uplifted by the metaphor of the net of dharma. It is wishable that the wisdom in the metaphor of the net of dharma would be invaluable reference & help to the critical development of our present legal system & culture.

Key words: Net, Law, Net of Law, Net of Dharma, Buddhist Tripitaka, Metaphor, History & Philosophy.

* Prof. of Law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Asian Traditional Legal Philosophy.

